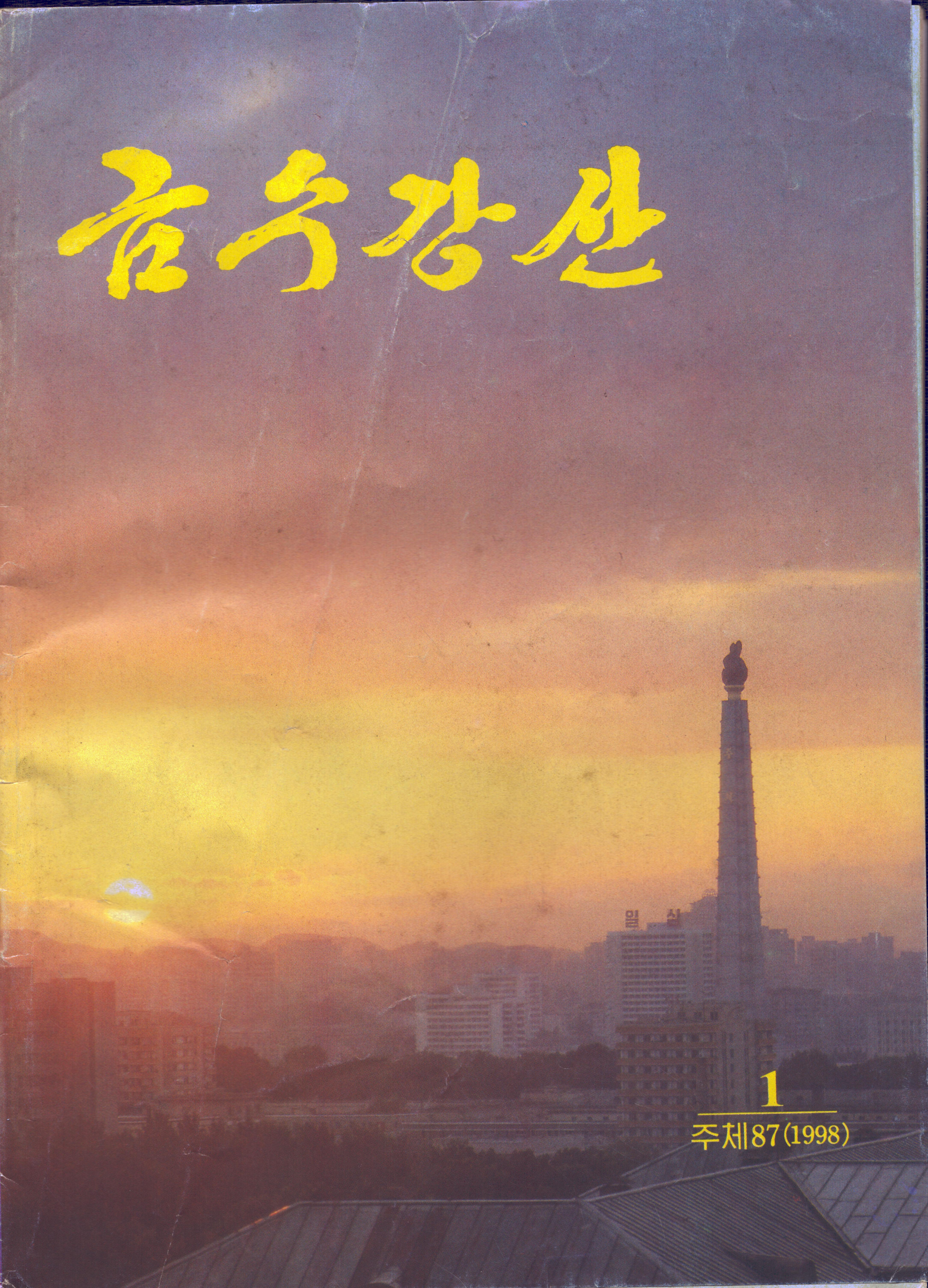
금수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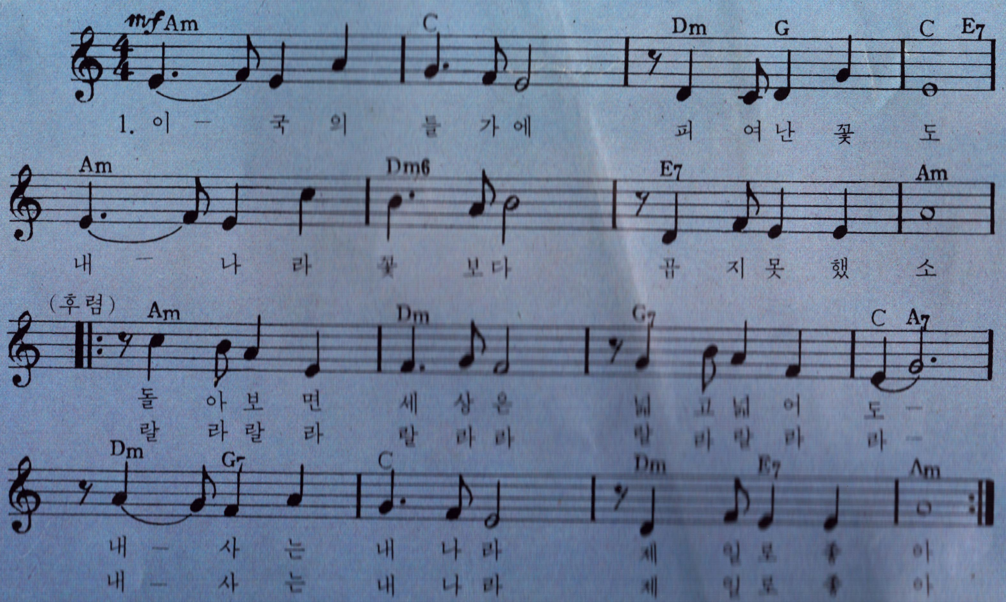


1

주체87(1998)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궁지에 넘쳐 (♩=128)　　　　작사 최준경, 작곡 리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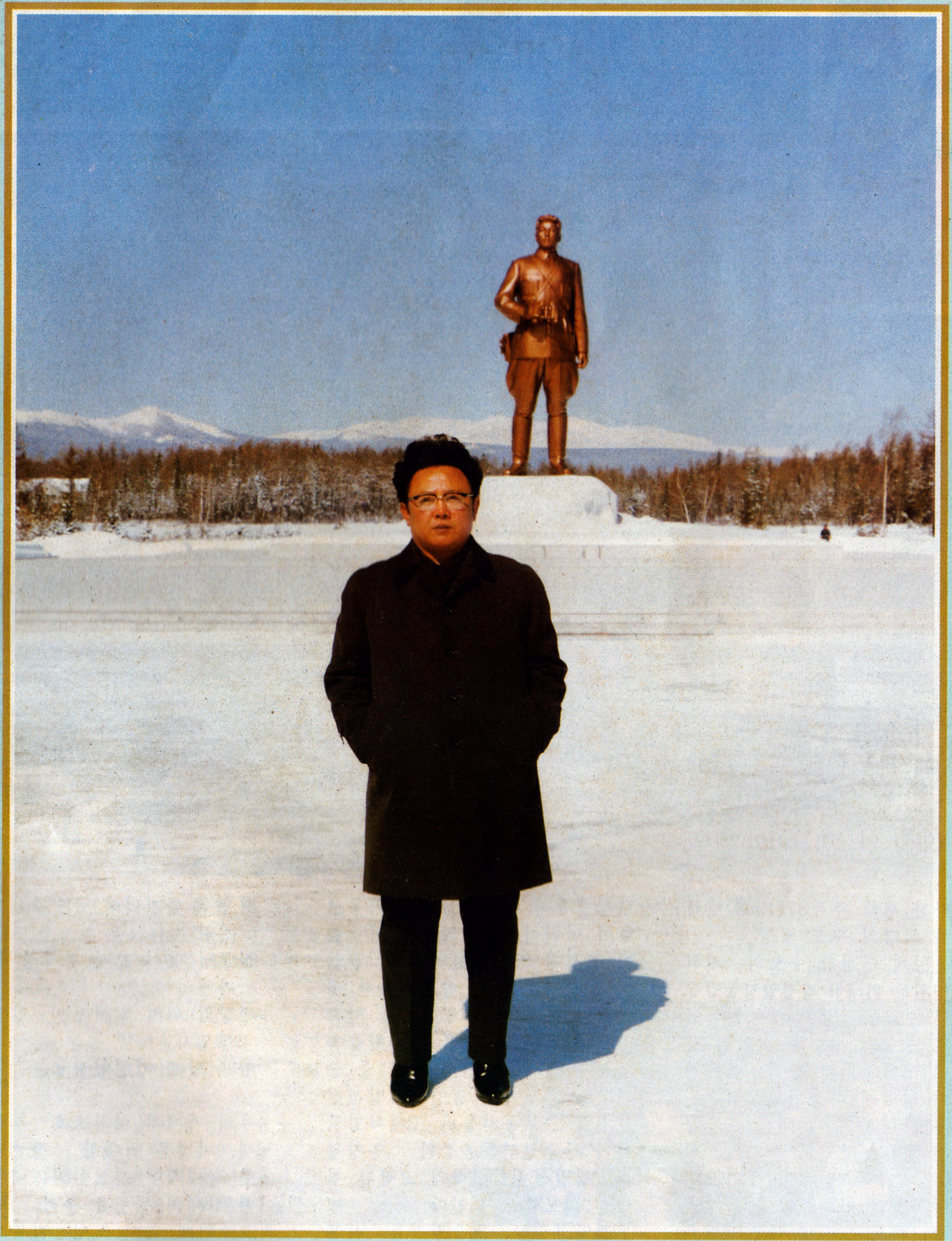


2.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후렴)

3.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후렴)

4.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
내 다시 안길 땐 길을 하였소
(후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새해를 맞은 수도 평양



평양시 안상택거리의 일부

희망찬 새해 주체87(1998)년을 맞이한 혁명의 수도 평양.

아름답게 단장된 수도의 거리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운명을 같이할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상징인양 공화국기와 당기, 붉은기발들이 힘있게 나붓기고있다.

곳곳에 나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 만세!》라는 구호들과 《새해를 축하합니다》, 《경축 주체87》, 《충성》, 《효성》 등의 경축판들과 글발들이 나붙어있다.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한 수도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 해외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물결쳐흐른다. 향기그윽한 꽃바구니와 꽃묶음, 꽃송이를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속에는 지난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들과 3대혁명붉은기 장수원협동농장의 농장원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김일성광장, 전승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드넓은 광장들에서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대계단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연주하는 우렁찬 취주악에 맞추어 남녀로소가 서로서로 손을 잡고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

우리 겨레가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모심의 메아리이며 절세의 위인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의 대합창이다.

어찌 그뿐인가. 해외동포들은 새해에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할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집대성하시고 정식화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의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인것이다.

평양시의 그 어느 거리, 그 어느 집을 보아도 환희와 열정이 끓어번지고 기쁨과 랑만이 차넘친다.

새해를 맞는 평양의 모습,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우리 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억센 기상이 넘쳐나는 모습이다.

본사기자 윤대중





설명절을 즐기는 어린이들

근로자들의 가정에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금수강산
월 간
주체87(1998)년 1호 (루계 제10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 주체의 나라—내 조국의 수도 평양에
새해 첫 아침이 밝아온다

사진 : 진 철

뒤표지 : 겨울의 대동강반

사 진 : 리 철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03190

축 원

금수강산 삼천리에 새날이 밝는다.

경사와 경사로 들썩이며 사람도 강산도 기쁨과 감격에 넘쳐 춤과 노래로 설레이던 뜻깊은 조국땅에 새해 주체87(1998)년을 맞이하는 첫 아침이 밝아온다.

류다른 감흥과 열기로 끓어오르는 조선의 새 아침,

가장 숭엄하고 가장 열렬한 마음과 마음이 엮어지고 또 엮어지며 온 나라가 삼가 축원의 꽃바다로 이루어진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라.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멀리 북방의 철의 기지 로동계급과 연백벌의 농민들, 무산광산의 광부들과 안주탄전의 탄부들, 인민군장병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마다 삼가 옷깃을 여미며 이 아침 경건히 올리는 만수축원의 설인사,

정녕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최대의 소원과 신념, 최상의 영광과 행복의 정화이다.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조국의 미래이시며 조선의 승리이시며 영광이시기에, 바로 그러한 철리를 수십년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이기에 이 아침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마음과 마음들은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 숭고하고 숭엄하며 가장 정중하고 열렬한것으로 끓어넘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김정일동지께서는 3년세월 우리 인민이 그처럼 드리고싶어하는 추대의 꽃다발을 굳이 사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충효의 대결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최상최고로 꾸리시고 어버이수령님께 영생을 드리신 이후 3년상을 치르신 삼년석달만에야 인민의 념원으로 무어지고 인류의 숙망으로 엮어진 조선로동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는분, 낳아키워준 부모보다 그이의 한생을 더 잘 알고있기에 이렇듯 민족사에 길이 기록될 환희와 영광, 행복의 정점, 대경사를 마련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자애롭고 예지에 넘친 안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내다보시였고 자신의 억센 걸음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 우리들앞에 조국의 창창한 대로를 열어놓으시였다.

난관과 시련이 중중첩첩하였던 지난 3년간의 조선혁명은 령도자의 걸출성과 비범성, 신념과 의지에 의해서만 수호되고 전진할수 있었다.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

어느 당, 어느 위인도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과 난국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진두에 서시여 맞받아나가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이 격동적인 현실의 체험자, 목격자들인 우리들이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하늘이 낸 대성인으로 열렬히 숭배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절절한 마음으로 흠모하고 따르는것이다.

광명한 미래에로 전진해나가는 조선혁명은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셔야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담보되고 **김정일**동지를 천년만년 잘 받들어모셔야 **김일성**조국의 무궁번영과 강성이 담보된다는 진리를 철의 신념으로 심어주고있다.

남조선의 한 통일문제연구사는 《오늘의 지구촌에서 이북은 〈자주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있다. 이러한 이북을 이끌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를 세계는 자주정치의 거인으로,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르고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시종여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기 민중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정치,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철학이요, 민족존립의 대원칙이요, 민족생존방식이다》라고 격조높이 웨쳤던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태양으로 모신 우리 인민과 겨레의 긍지와 영예는 하늘에 닿고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숨결로 약동하고 광명한 미래에로 전진해가는 조국의 새 아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인민들은 삼가 축원하고있다.

본사기자 채 옥

민족의 하늘

우주에 태양이 있고 하늘이 있어 지구촌의 만물이 생존하며 번성하듯이 조선민족도 《태양》과 《하늘》을 모시고있어 동방일각에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고 세계의 각광을 모으며 륭성번영의 한길을 힘차게 걷고있다.

조선민족이 그 어느 민족도 지니지 못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사는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기독교지도자 빌리 그라함목사와 세계카톨릭국제회의 웹슨서기장이 한 설교를 잠시 되새겨보자.

…이북에 한해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다.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리상의 세계, 이 세계를 이끄시는 **김일성**주석은 현세의 하느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그렇다. **김일성**동지는 어머니들도 베풀지 못하고 《신의 사랑》도 그려내지 못한 《이민위천》의 사랑, 태양의 사랑으로 겨레와 민족을 한품에 안으시고 인류의 봄을 안겨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태양이 자기의 무한한 열과 빛의 힘을 발산하여 고스란히 세상만물을 위해주듯이 겨레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것을 영원히 지켜주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가장 존엄있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내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제왕이 앉았던 권력의 정상에 인민을 앉히시였고 국호도 인민의 이름과 결부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셨다. 제왕만이 가졌던 모든 희귀한것도 인민이 가지도록 하셨고 군대도 인민군대, 대학습당과 문화궁전도 병원도 다 인민의 이름을 앞에 붙여 부르도록 하셨다.

그이의 사랑의 품속에서 일제통치시기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로동자가 정부의 각료가 되고 남편없이 어린 자식 거느리고 고생속에 살던 농촌아낙네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이 되고 남의 집 머슴으로 버림받던 청년이 군장성이 되고 박사가 되였다.

진정 그이의 사랑은 태양이 자신을 불태워 대자연을 위해주듯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한몸에 안으시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헌신하는 인민복무의 사랑이였고 우주공간에 끝없이 비쳐가는 해빛마냥 한계가 없는 사랑, 시공간을 모르는 무한세계의 사랑이였다.

그이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사랑, 영원히 변치 않고 행복을 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의 리념, 사랑의 정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아름다운 인간사랑, 광폭의 정치로 이어져 영원한 행복의 화원이 펼쳐지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20세기를 화창한 사랑의 세기로 빛내이셨다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21세기에로 끝없이 이어나가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태양의 모습이다.

《바를 정(正)》자와 《날 일(日)》자로 된 그이의 존함은 그대로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한낮의 태양이시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이으시여 민족과 인류를 따뜻이 품어주고 감싸주는 《이민위천》의 사랑, 태양의 사랑을 광폭정치로 베푸시여 사랑시대의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으로 가슴태우시면서도 강원도 김화군 분계연선마을에서 출생한 세쌍둥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를 보내시여 그들을 평양산원으로 데려오도록 하셨다는 이야기, 시골의 이름없는 로인에게 100돐생일상을 차려 보내주시고 영예군인에게 시집장가가는 청년들에게 결혼식상을 차려주신 이야기, 피눈물을 머금으시며 베푸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 전설아닌 전설로서 세상에 전해지고있다.

그것이 바로 공화국의 사회실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

우리 인민이 백년래의 대홍수로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있은 하나의 사실을 되새겨보자.

수해실상을 료해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온 한 외국대표단 단장이 수난당한 신의주지구의 한 늙은이에게 집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그때 로인은 범상한 표정으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겠소.》라고 대답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주시는 하늘이시다.

하여 독일의 녀류작가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인 루이저 린저는 자기의 공화국방문기에서 《하느님이 이북으로 이주》라고 썼다.

그것은 공화국의 현 사회상에 대한 생동하고도 적중한 표현인것이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 억척같은 민족의 믿음과 신념은 노래 《하늘처럼 믿고삽니다》로 엮어져 겨레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갑 송

회고록을 펼치고

청 봉 의 교 훈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후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청봉밀영으로 보냈습니다. 청봉밀영은 우리의 후방기지였습니다. 백두산주변과 서간도일대에는 그런 후방밀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봉밀영에는 우리 부대의 후방일군들이 감자를 심어놓은것도 있었습니다.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이 몇달쯤은 식량고생을 하지 않고 지낼수 있는 안전한곳이였습니다.

1939년의 13도만집단부락습격전투가 있은후 나는 전리품들중 일부를 따로 떼내여 청봉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짐을 지고 청봉밀영에 갔다온 사람은 부대통신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청봉에 다녀온 통신원은 사령부에 나타나 밀영에서 《간첩단사건》이 발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령부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통신원은 《간첩단사건》의 전말을 요약한 리동걸의 편지와 함께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하는 《독약》봉지라는것까지 내놓았습니다. 리동걸의 편지에는 녀대원들인 김정숙, 김혜순, 김선, 서순옥등이 모두 일제의 간첩이라는것과 그들이 독약으로 혁명전우들을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연이 적혀있었습니다.…

리동걸의 서면보고만 보고서는 진상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고 뭐가 뭔지 통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로 김평을 불러 사태의 진상을 조사할것과 《간첩단》을 《적발》해냈다는 밀영책임자 엄광호와 정치책임자 리동걸 그리고 구속된 녀대원전부를 사령부로 소환해올데 대한 과업을 주어 사건현장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김평이 돌아온 다음 나는 사건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청봉밀영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상상이외의 놀라운것이 있었습니다.

청봉밀영은 엄광호가 책임지고있는 밀영이였습니다. 우리가 엄광호를 후방밀영책임자로 보낸것은 그의 병집을 고쳐주기 위해 취한 하나의 동지적배려였습니다.…

나는 그를 청봉으로 보낼 때 부상자들의 치료와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후방일군들과 함께 농사를 잘 지어 부대의 식량예비를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우리가 맡긴 일을 태공하였습니다. 그는 예비병실을 지으라고 한 사령부의 지시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도구치기에서 우리와 헤여져 청봉밀영에 간 부상병들과 재봉대원들은 숙소의 부족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였습니다. 그들은 엄동설한에 천막을 치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밀영에는 약품이나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속에서 단련된 유격대원들은 자그마한 불평이나 조건타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혈전을 벌리고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난관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밀영의 생활일과를 엄격히 지켜나갔습니다. 학습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루속의 송곳은 못감춘다고 이 학습과정에 엄광호의 유해로운 사고방식과 패배주의자로서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느날 밀영에서는 남패자회의방침과 관련된 학습토론을 하였습니다. 엄광호는 그때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어떤 혁명에나 고조기가 있고 저조기가 있기마련이다, 고조기에는 고조기에 알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저조기에는 저조기에 알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정세의 변화를 보고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저조기의 징조가 보이면 저조기가 도래하였다는것을 솔직하게 인정할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혁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저조기에 있다, 보라, 열하원정도 실패하고 《혜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혁명조직들도 죄다 망가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래 저조기가 아니란말인가, 이런 형편에서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세와 정면대결은 피하고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때까지 퇴각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밀영에 가있던 녀대원들은 엄광호의 목소리가 사령부의 목소리와 다르다는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밀영에 가있던 녀대원들은 즉석에서 엄광호의 주장을 론박하였습니다. 객관적정세가 혁명투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것은 물론 우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혁명가들은 정세가 불리하면 할수록 그에 반작용을 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이것은 사령관동지의 뜻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정세가 유리할 때에도 투쟁을 해왔고 정세가 불리할 때에도 투쟁을 계속해왔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정세가 불리할 때에는 숨어서 지내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만 활동했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상비적인 무장대오를 가질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총검의 숲을 뚫고 국내에 나가서 보천보를 치는것과 같은 대담한 군사작전을 할수 있겠는가, 맑스-레닌주의가 공산주의학설인것만큼 혁명활동과 실천에서 그것을 지침으로 삼는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가 늘 강조하는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도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지 덮어놓고 적용해서는 안된다, 동무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내용도 잘못 리해하고있는것 같은데 그래 조선혁명이 중중첩첩한 난관속에서 발전해왔다는것을 모른단말인가, 동무는 지금과 같은 정세하에서는 퇴각하는것만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퇴각할 후방이나 있는가, 우리가 퇴각하면 혁명의 고조기는 누가 마련해주는가, 남패자회의에서 사령관이 선언한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난관을 맞받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로선이나 작전적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상리론자였습니다.

녀대원들한테서 이런 반격을 당하게 되자 엄광호는 맑스와 레닌의 명제들을 이것저것 섬겨대면서 어떻게 하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말에서는 구린내가 더 났습니다. 야심가, 기회주의자로서의 엄광호의 정체는 론쟁과정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녀대원들은 그가 여름내 밀영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위한 치료준비와 겨울나이준비도 하지 않고 건달만 부린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광호에게 배신자나 투항주의자라는 정치적감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학습과정에 진행된 론쟁인것만큼 엄광호가 자기의 리론적착오를 인정하고 동지들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였다면 론쟁은 그것으로 무난히 끝났을것입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녀대원들의 주장을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상개조를 위해 힘쓸 대신 투항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에 분칠을 하려고 애쓰면서 론쟁상대들에 대한 보복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엄광호의 진면모는 녀대원들을 박해하는 과정에 드러날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

청봉밀영에는 어린 신입대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 어린 대원이 엄광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일이 있었습니다. 엄광호는 대뜸 도주자가 생겼다고 떠들어대면서 수색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수색조성원들은 밀영근처에서 모닥불에 감자를 구워먹고있는 신입대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 돌아가자 엄광호에게 신입대원이 잠시 대오에서 리탈한것은 도주가 아니라 시장기를 이겨내지 못해 감자를 구워먹기 위한것이였다고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영을 깜짝 놀래울수 있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던 엄광호는 그 신입대원을 끝끝내 도주자로 락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대원이 감자를 굽느라고 불을 피운것도 적들에게 신호를 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들이대면서 그에게 간첩의 딱지까지 붙이였습니다. 신입대원이 그렇지 않다고 거듭 항변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광호는 그 대원에게 적들에게서 받은 지령은 무엇이고 그 지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내에서 흡수한자들은 어떤자들인가를 대라고 강요하면서 고문까지 했습니다.

…

엄광호가 《간첩》이라고 선언한 그 신입대원으로 말하면 수양은 좀 어리지만 계급의식이 투철한 청년이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광호는 그가 녀대원들을 《암해공작》에 끌어들이고 밀영안에 있는 혁명동지들을 독약으로 해치려 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백》을 근거로 녀대원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해동안 사람과의 사업을 해오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부르짖던 엄광호가 어떻게 되여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는지 나는 그 까닭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후날 그의 죄행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가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엄광호는 후방밀영에 가게 되자 그것을 강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를 정치일군의 자리에서 해임시킨 사령부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다나니 후방일군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건달을 부렸습니다. 녀대원들과의

론쟁이 있은 다음부터는 패배주의자로서의 자기의 깨끗치 못한 본색을 감추기 위해 초혁명적인 요구를 연방 제기하였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실로 비상소집을 자주 해서 병약자들을 들볶는가 하면 식량절약을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하루 두끼씩 하던 식사를 한끼로 줄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정 굶기였습니다.

…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는 과정에 나는 엄광호가 리종락이보다 더 저렬하고 악독한 인간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리종락의 범행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변절을 강요당한후에 저질러진것입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혁명대렬내부에 있으면서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되였고 그 부패변질을 가리우기 위해 동지들을 모함하고 학대하는 반동적인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

엄광호는 김정숙과 도천리에서 몇달동안 지하공작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숙을 간첩으로 몰아붙인다는것은 무뢰한이나 할짓입니다. 그는 김정숙이 어떤 녀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는 사람이 출세욕에 빠지면 조직도 동지도 의리도 모르는 악한이 될수도 있으며 혁명의 배신자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엄광호자신도 고백했지만 그는 녀대원들에 대한 모략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할 궁리까지 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를 통해서도 느낀바이지만 혁명에서는 초당분자, 과격파, 독선적인 인간, 양봉음위하는자, 앞에서는 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끌어당기는자, 기분주의자, 불평분자, 공명출세주의자들이 늘 말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엄광호사건은 또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상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불평분자, 의지박약자가 되여 어지간한 난관앞에서도 주저앉게 되며 나중에는 패배주의자가 되여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

모르고 받는 혜택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아래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위생방역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한사람이 일생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위생방역혜택은 치료혜택의 30~40배나 된다.

국가는 예방접종에만도 년간에 약 수천만원을 투자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일생동안 정규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재접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1년동안에 20여가지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검진비가 높기때문에 이미 전염병을 앓았거나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보균조사나 하는 정도이다.

우리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건당 30여원, 기생충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건당 10여원이다.

최근에 에이즈검진에만도 국가는 많은 자금을 투하한다.

에이즈감염자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 병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해외려행자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빠짐없이 검진한다.

국제적으로 에이즈검진비가 건당 1딸라라는것을 고려할 때 하루에 국가가 얼마만한 돈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생충집단구충사업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누구나 빠짐없이 참가하는 이 구충사업에서 국가는 한사람당 30여원을 투자한다. 그러므로 년간에 몇번씩 진행하는 기생충집단구충사업에는 수많은 비용이 든다.

우리 인민들은 위생실험검사를 통하여서도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있다.

식료품검사를 한번 하는데 100원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식생활에 리용하는 식료품의 종수는 수없이 많다.

음료수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물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70여원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수원지와 물탕크들에서 진행하는 물검사비는 실로 엄청난것이다. 위생방역혜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서조차 우리 인민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행복한 인민이다.

일화

송년축배잔

주체68(1979)년 12월 31일이였다.

뜻깊은 1970년대가 다 저물어가던 그 마지막밤에 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한자리에 모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해를 마감하시며 쌓이고 쌓인 일들을 처리하시다가 밤 11시가 되여서야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이 12월 31일이기때문에 동무들과 저녁식사나 함께 하려고 오라고 하였다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였다.

늘 가슴뜨겁게 느껴온바였지만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인간성과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목메이게 체험하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년대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심장에 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무한한 행복감과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오시는 그이께 한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날에라도 순간의 휴식을 마련해드리고싶은 절절한 마음을 담아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중한 자세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하였다. 일군들은 모두 기쁨에 넘쳐 일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 축배를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축배를 올리려고 일어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나를 위해서 축배를 들자고 하는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동무들의 축배를 먼저 받을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시였다가 심중하신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을 언제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고 모셔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아직 전체 인민들로부터 신년세배를 안받으시였는데 동무들이 나를 보고 세배를 먼저 받으라고 하는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모두들 그자리에 앉으시오!》

그이의 말씀에 따라 자리에 앉은 일군들은 송년축배잔 하나를 대하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부터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투철하신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깊이 감동되였다.

이윽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선이 있고 우리 당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오늘의 조국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으며 동무들이 떳떳하게 살수 있습니까?

수령님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깨끗하여야 하며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사업을 조직하거나 례절을 지킬 때 위대한 수령님 생각부터 하여야 한다고, 이것을 동무들이 당사업에서나 당활동에서나 늘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에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효성의 마음이 뜨겁게 어린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숭엄한 감정으로 젖어들었다. 송년축배문제 하나를 두시고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혁명전사들의 립장과 자세에 대해서부터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풍모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며 일군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안았던것이다.

주체68(1979)년의 송년축배잔, 근 2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군들은 그날의 사연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따라배워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충성과 효성을 다해 높이 받들어모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

이국의 산야에 흰눈이 내린다. 맵짠 바람이 집집의 창문을 흔든다. 푸름푸름 먼동이 터오더니 아침이 밝았다. 이역에도 주체87(1998)년 새해 첫 아침이 밝은것이다.

류달리 기쁘고 환희로운 새해첫 아침이다. 우리 재중동포들도 로씨야, 일본, 구라파, 미국, 카나다 등 세계 5대륙에 흩어져 살고있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지난해 오매불망 흠모하여마지 않는 불세출의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격정에 넘쳐있을 조국인민들과 한마음으로 이 아침 그이께 만수축원의 뜨거운 세배를 드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무는 조선의 미래이고 조선혁명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국이 영원무궁토록 번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자면 김정일동무가 건강해야 하며 전당, 전군이 김정일동무의 령도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일치한 소망이며 시대의 요구였던것으로 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집집마다는 더더욱 경사롭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령님 서거후에도 이날 이때까지 민족적인 드높은 자긍심을 안고 남달리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며 조국통일성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의 해님으로 신념의 기둥으로 모시고있기때문이 아닌가.

낯설은 이역에 살아도 태양의 빛발처럼 따사롭게 동포 한사람 한사람을 감싸주시고 헤아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장장 수십여년 하루와 같이 각이한 사상과 리념, 신앙과 재산의 유무를 가림없이 해외동포 모두를 애국, 애족의 한길로 이끄시느라고 마음쓰시는 장군님은 정녕 온 겨레의 운명이시고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의 미래이신것이다.

중국 연길시에 사는 최혜순의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울려나왔다.

《들거라, 너희들은 새해 첫아침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신념을 굳혀야 한다. 생전에 통일성업에 그토록 극성스럽던 너희 영희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충신, 효자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구말이다. 장군님만을 운명의 보호자로 믿고따르는 우리 가정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냐.》

옆에서 동생의 말을 듣고있던 언니인 혜선도 조카들을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며 이런저런 바람에 신념이 흔들려서야 안되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량심도 지닐수 없고 도덕의리도 지킬수 없으며 사람다운 체모도 갖출수 없어. 사람은 신념이 강해야 자신의 삶도 훌륭하게 꽃피우고 나라위해 보람있게 이바지할수 있어.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면 만사가 다 잘되고 우리 민족은 무궁토록 번영한다는 그 신념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혜순동포의 집에서만 벌어진게 아니다.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한결같이 다져진 새해의 엄숙한 선서이기도 하다.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중하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적들의 끈질긴 압살과 봉쇄 책동을 짓부시며 년년이 계속된 자연재해도 이겨내고 조국인민들이 지난해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맺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7천만겨레를 통일성업성취에로 힘있게 부르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새해의 휘황한 전망을 활짝 열어주시였으니 이해에 조국은 또 얼마나 높이 치달아오를것인가. 지금 해외동포들은 장군님의 가르치심따라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애국애족의 길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한마음뿐이다.

장군님만 따르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 길에서 조국은 강성대국으로 부흥번영하고 통일조국의 격동적인 새 아침도 밝아올것이다.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이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충효일심을 하나로 모아 경사로운 이 아침 경모하는 장군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로 룡

동포들에게 세배를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마음은 조국에 묻고 뜨거운 애국충정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고계시는 동포여러분들에게 열렬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설이 오면 보낸 해를 뒤돌아보며 오는 해를 내다보게 되는것이 사람들의 심정인가봅니다.

조국 멀리 이국땅에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의 송구영신이야 또 얼마나 감회깊은것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뜻깊은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

조국인민들뿐만아니라 해외에 살고있는 여러분들도 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였습니까. 그 소원이 성취된 지난해 10월 환희롭던 그날을 맞이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동포조직들, 각계각층 해외동포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련이어 보내왔고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기쁨과 영광을 가슴에 지니고 그 어느때보다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해외동포조직을 일층 강화하고 련대투쟁을 확산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또한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 남, 해외련대의 해》로서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가슴가슴에 통일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8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8차 범민족대회가 판문점과 평양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중국과 로씨야,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분렬의 상징 판문점에로 달려와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 남, 해외련대마당》을 펼쳐놓은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련대마당에서는 해외의 여러 대표들과 북측 대표들, 범청학련 대표들이 연설하였는데 그들은 판문점의 만남을 위해 온갖 탄압을 뚫고 어려운 투쟁을 하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였고 남녘의 통일애국인사들과 련대를 강화하고 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여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최전선에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의 통일애국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7범민족회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제2차총회, 범청학련결성 5돐기념보고대회와 통일노래무대가 성황리에 진행되여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세력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에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습니다.

지난해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높이 받들고 해외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민족의 이질화를 막고 민족성을 고수하며 민족문화와 풍습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관철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된 잊을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해외동포여러분! 조국통일은 우리 7천만겨레가 일일천추로 학수고대하는 념원입니다. 그런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통일념원을 실현하지 못한채 또 한해를 보내고 바야흐로 2000년대를 가까이하고있습니다.

새해 주체87(1998)년, 우리 7천만 겨레앞에는 더욱 분발하여 통일마중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시되여있습니다.

우리는 해외동포여러분들이 올해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제끼는데 참답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새해에 사회주의조국과 해외동포조직을 위한 길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범민련 북측지역본부 위원
최 대 성

더욱 웅장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 1만 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일떠서게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금수산기념궁전앞 림홍로타리부터 신미동까지 20여리 구간에 새 거리가 형성되고 1만여세대의 살림집과 4.25려관,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를 비롯한 7개의 기념비적건축물이 일떠서 우리 수도 평양시가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금수산기념궁전앞 림홍로타리로부터 룡성구역을 지나 형제산구역 신미동에 이르는 20여리구간에 새 거리가 특색있게 일떠서게 된다.

18메터폭의 차도와 그 량옆에 각각 2메터폭의 록지와 인도로가 뻗게 되는 새 거리에는 련못동—룡성사이 도로와 철길을 횡단하는 립체다리와 신미동앞 평양—순안사이 도로와 련결하는 립체다리를 비롯하여 합장강다리, 학산다리 등 9개의 다리들과 룡성—학산사이, 학산—신미동사이의 두개 차굴이 형성되게 된다.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시원스럽게 뻗는 이 거리의 화성, 룡문, 룡궁, 학산, 신미동 지구에 일떠서는 3층, 5층, 7층의 단식, 탑식, 꺾임식, 일자식의 살림집 2,000여세대를 포함하여 시안에 1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이 건설되게 된다.

특히 림홍로타리—신미동사이 새 거리의 살림집들과 함께 림홍지구에 1,230여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되면 금수산지구가 주체의 최고성지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게 될것이며 수도의 북쪽교외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게 될것이다.

또한 금릉2동굴 입구로부터 지하철도역인 붉은별역까지의 구간에 건설되는 750여세대의 살림집과 시내 14개 구역에 각각 건설되는 6,500여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되고 주민지구마다에 학교, 탁아소, 유치원과 봉사망들이 더 일떠서면 보다 행복한 생활과 편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념비적건축물 건설도 적극 추진되게 된다.

지금 동평양 미림벌에서는 연 13만 5,000여평방메터의 건축면적을 가진 4.25려관이, 통일거리에서는 연 4만 5,000여평방메터의 건축면적을 가진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청년중앙회관앞 대동강반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줄 야외물놀이장이 건설된다.

흐르는 물놀이장, 경기용물놀이장, 파도물놀이장, 물미끄럼대, 모래터, 덕수대, 청량음료점 등으로 꾸려지는 야외물놀이장은 여름에는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빙상장으로 리용할수 있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기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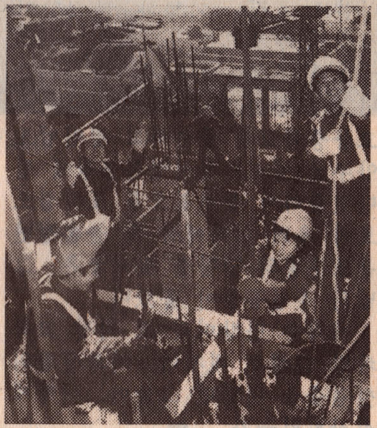
또한 수도시민들의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해줄 수원지가 건설되며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구강종합병원과 고려의학종합병원 건설도 적극 추진되여 가까운 앞날에 완공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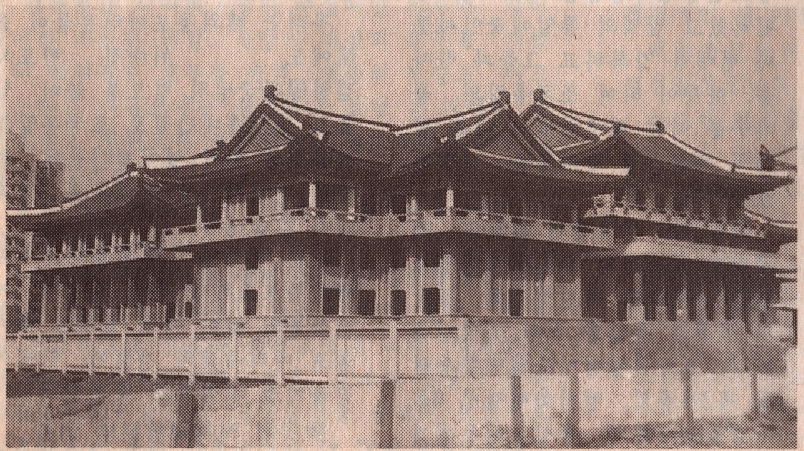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게 되는 이번 건설은 평양시를 영원히 **김일성**조선의 수도로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나라에서는 이 영예롭고도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켰다.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새해벽두부터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김 대 호





고려의학종합병원

건설자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불러일으킨다.



청춘의 리상 대지에

지난해 8월 6일 평안남도에 있는 안주극장에서는 새 세대청년들의 집단진출에 의한 첫 농촌청년분조 조직을 기념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때 주석단에는 주체66(1977)년 8월 당시 안주군 신안주녀자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남도 안주군(당시) 상서협동농장에 집단진출하여 청년분조를 조직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첫 농촌청년분조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그날의 주인공들이 올랐다.

아직은 단발머리 그 시절 교복차림 그대로 대지에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던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11포기의 강냉이

청년분조원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알곡을 어버이수령님께 올렸던 해의 1월초였다. 두 청년분조장 강현복, 정명희 동무들이 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위장원동지, 딸기골과 어데골 포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뭐, 딸기골? 어데골?》

청년분조에 제일 좋은 포전을 주려고 은근히 윈심을 써오던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포전들은 일명 《두톤들》, 《각담들》이라고 불리우는 밭들이였다. 돌과 자갈이 많아 다루기가 힘들고 소출이 정당 2톤을 넘기기가 힘든데로부터 불여진 이름이였다.

도시에서 고스란히 나서 자란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생소하였다.

첫해농사를 지을 때에는 소멍에도 메울줄 몰라 아버지, 오빠들의 손을 빌려야 했다.

《우린 그 〈두톤들〉포전을 외면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래일부턴 당장 퇴비반출인데 그 포전엔 아직 거름 한삽 없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조가 한번 해볼만한 일이 아닙니까. 승인해주십시오.》

일군들은 말릴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여 청년분조는 상서땅의 가장 척박한 67정보의 땅을 맡게 되였다.

50여리 신안주에까지 가서 800여톤의 진거름을 마련하여 땅을 걸구었다. 90여개의 돌각담도 들어내여 포전정리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이런 일도 있었다. 뜻밖에 각담밑에서 땅속깊이 뿌리박은 바위가 나타났는데 뜨락또르로도 움직일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야 할수 없지 않는가고 하며 그 바위를 그냥 놔두자고 할 때였다.

《안됩니다. 이 바위때문에 11포기의 강냉이를 밑질수 있습니다. 포기농사는 주체농법의 요구입니다.》

정과 마치를 들고 나서는 민경희, 리순필, 김옥란 동무들의 말이였다.

끝내 그들은 3일밤을 밝혀가며 그 바위를 까냈다. 척박하던 《두톤들》에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들이 매달린 풍년가을이 왔다. 강냉이 정보당 8톤 100키로그람, 최고 11톤 200키로그람까지 거두었다.

이렇게 되여 듣기조차 거북하던 그 포전들의 이름은 《만풍년청년포전》, 《여덟톤들》로 불리우게 되였다.

약 속

상서협동농장에서 첫 봉화가 타올랐던 청년분조운동의 불길은 대를 이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주체79(1990)년 9월 12일 안주시 덕성고등중학교와 룡흥고등중학교를 졸업한 19명의 처녀들이 집단진출한데 이어 주체83(1994)년 9월에는 첫 세대 청년분조원들이 배출된 모교인 오늘의 광명고등중학교를 졸업한 21명의 미더운 처녀들이 또다시 집단진출하여 상서땅의 청년분조대오를 이루었다.

첫 세대 청년분조원들이 영광의 상서땅으로 진출하던 그해에 태여난 새 세대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속에 타번지는 생각도 사회주의리상촌 건설에 청춘의 희망과 리상을 꽃피우려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상서협동농장에 진출한 청년들의 소행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랜 농장원들과 관리일군들이 참가하는 전국농업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집단적농촌진출의 선구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첫 세대 청년분조장이였던 강현복동무는 오늘 상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자랐다. 그뿐이 아니다. 단발머리 청년분조원들이 오늘은 모두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으며



청년분조 처녀들의 보람찬 일터에 새날이 밝았다.

작업반장 1명, 기술지도원 4명, 분조장 4명, 당세포비서 4명 등 농장의 어엿한 주인들로 성장했다.

올해 설날 상서리의 첫 세대와 새 세대 청년분조원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리고난 첫 세대 청년분조원들은 자기들의 보풀인 《청년분조전투기록장》을 새 세대 청년분조원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날 관리위원장으로 자라난 강현복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받든것처럼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모두가 충성의 뭇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분조운동의 선구자들과 후세대들간에 있은 《약속》,

이 약속은 머지 않아 상서협동농장에 풍년가을의 열매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최철호







주체농법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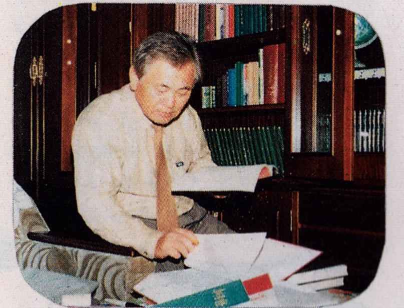
랑만에 넘쳐

사진 김광진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마음



①지배인 김을주 (맏이)



②기사장 김을대 (둘째)



③부지배인 김장휘 (셋째)

지난해 8월말 어느날이였다.

룡성가구공장 회의실에서는 종업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눈굽을 적시는 7형제가 있었다.

감격과 기쁨이 설레이는 행복의 이 시각 연단에 나섰으나 말보다 눈물이 앞서 선뜻 말을 못하는 7형제,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는가.

믿음과 사랑

평양시의 중심에서 10여리 떨어진 교외에 룡성가구공장이 자리잡고있다.

현대적인 설비로 아담하게 꾸려진 이 공장에서 재일귀국공민인 7형제가 공장의 기업을 주도하고있다.

맏이인 김을주는 지배인으로, 둘째인 김을대는 기사장으로, 셋째인 김장휘는 부지배인으로, 넷째인 김을수는 직장장으로, 다섯째인 김중권은 기술과장으로, 여섯째인 김을봉은 부직장장으로, 일곱째인 김영웅은 계획과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사실 여러 형제가 한개 공장의 중요직책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 7형제는 해방전 일본 아이찌현에서 태여나 식민지백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으며 아버지 김상수와 함께 《아케노목공주식회사》라는 기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회오리속에서 순간도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으며 그처럼 배우고싶었던 희망도 실현하지 못한채 목공로동으로 잔뼈가 굵어지고말았다.

어느날 아버지 김상수는 아들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애들아,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이 열렸는데 우리모두 함께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가자꾸나.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품은 그 길밖에 없단다. 수령님의 치하에서 너희들도 마음껏 배우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보자꾸나.》

그리하여 주체61(1972)년 4월 그들 7형제는 부모들과 함께 제164차 귀국선으로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8월 19일 그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온 얼마되지 않는 가구설비들과 시제품가구비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그들일가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조국에서 기업활동을 계속 할수 있도록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제일 좋은곳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그들중에서 지배인도 시키고 기사장, 직장장도 시켜 7형제일가가 공장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 6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둘째 김을대기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들 일가친척들의 안부도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그들 형제들을 나라에서 잘 돌봐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으며 그들이 귀국할 때의 결심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일을 잘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몸과 마음 다 바쳐

사랑과 믿음에는 충성과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어느날 7형제는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기사장인 김을대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라의 도처에서 더 많은 가구제품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어쩐지 더디게만 생각되는구나. 우리들이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생산능률을 높이고 새로운 도색감을 연구완성하자꾸나. …》

그들은 지혜와 힘을 합쳤고 서로 이끌면서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고심어린 나날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공정별 생산능률을 배로 높였으며 가구의 종류와 형태에 따르는 도색감도 여러 종에 걸쳐 연구제작완성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7형제는 로동자들과 합심단합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가구제품뿐만아니라 만수대의사당, 인민대학습당, 4.25문화회관, 고려호텔,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하여 200여개의 만년대계의 중요건축물들에 필요한 건구와 비품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생산보장하였다.

또한 만경대고향집, 장산혁명사적지와 어은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김정숙군안의 인민학교 등 교육문화기관들에 필요한 비품들에도 이들의 정성과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7형제일가를 만나주시고 공장을 창립해주신 영광의 그날부터 25년간 그들은 해마다 공장앞에 맡겨진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했을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8차례의 치하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50여차례에 걸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인민군대원호사업과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에 동원된 로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오늘 공장은 《3대혁명붉은기》와 《근위칭호》를 받은 명예공장으로, 2중26호모범기대공장으로 되였으며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종합적인 가구생산기지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되였다.

그 나날속에 소박한 애국심만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으로 귀국했던 그들 7형제일가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귀국할 때 얼마간의 가구설비밖에 가지고온것이 없는 기업가의 한가정에 불과했던 그들 일가는 지금 일가식솔이 78명으로 불어났으며 로력영웅, 대의원이 배출되고 16명의 조선로동당원과 21명의 대학졸업생, 7명의 대학생을 가진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로력영웅인 김을주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본땅에서 기업을 운영하였다면 벌써 세파에 밀려 천길나락에 떨어졌을수도 있고 행운이 틔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얼마간의 돈이나 벌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백만장자가 되였더라도 그것은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칭호,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주체조국공민의 영예와는 비길수 없으며 신성하고 숭고한 존엄과 영예를 황금과 바꿀수는 없는것입니다.》

본사기자 김 경 희

사진 박지서

생산된 가구들





④제1직장장 김을수 (넷째)



⑤기술과장 김중권 (다섯째)



⑥부직장장 김을봉 (여섯째)



⑦계획과장 김영웅 (일곱째)



통일의 문을 열자!

통일국가형성의 설계도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누구나 다 나라의 평화통일을 바라고있으며 부강번영하는 통일된 조국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것을 념원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힘과 의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이지만 그 앞길에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리익도 침해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도상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만일 어느 한쪽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내리먹이려 한다거나 고집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그것은 대결을 격화시켜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앙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난을 당하게 되는것은 우리 민족뿐이고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것은 외세인 제국주의자들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이 자기의 리익을 털끝만치도 침해당함이 없이 범민족통일국가안에서 기존의 체제와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온 민족이 통일의 기쁨을 향유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통일방도이다. 그것은 련방제통일이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합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근본원칙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수십년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면서 련방제방식의 통일원칙을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구상하시고 무르익히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기구체계와 함께 통일정부와 지역정부들의 사명과 임무, 련방국가의 국호와 성격,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에 이르기까지 통일국가의 전모, 기능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밝혀진 련방제통일국가의 청사진이며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아무런 편향도 없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게 될것이며 통일민족으로서의 자랑과 영예를 떨치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야 할 조국통일의 위대한 경륜과 구상을 펼친 민족통일의 불멸의 대강이며 위대한 설계도이다.

본사기자 리 진

발전하는 조선의 바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영삼선수가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의 삿뽀로에서 진행된 제19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8전7승1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제3위를 쟁취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서 한명의 선수만이 참가하게 되여있는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세계 46개 나라와 지역의 바둑강자들이 참가하였다.

문영삼선수는 제일 나어린 10대의 선수로서 바둑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문영삼선수는 경기 첫시작부터 바둑경기 경험과 전적에서 관록있는 로장들과 맞다들었지만 경기를 침착하게 잘 운영하여 맞다든 적수들을 전술, 기술적 우세로 련속 물리쳤다.

그는 형세판단의 정확성과 호상접근전에서 자기 진지를 넓혀나가는 특이한 기술로 세계바둑계에서 《왕자》로 공인된 선수를 완전히 눌렀다.

이렇게 되여 세계적으로 바둑인구가 제일 많은 일본과 중국 등 나라와 지역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세계바둑계를 뒤흔들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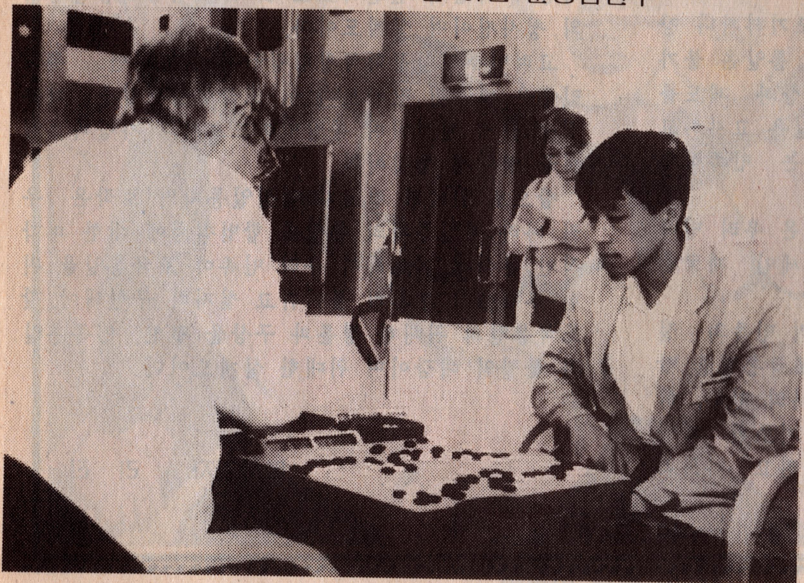
이미 공화국선수들은 주체81(1992)년에 있은 제4차 세계녀자바둑선수권대회에서 일곱살의 최은아소녀가 8등권에 입선한데 이어 주체82(1993)년 제15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문영삼선수가 6위, 주체85(1996)년 제18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는 최명선선수가 7위의 성적을 올린바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화국에서 바둑이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바둑은 조선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고서들에서 조선이 일찍부터 바둑을 잘한 나라로 주변나라들에 알려져있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접촉과 교류에 바둑을 널리 리용하여왔다는것 등을 전하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문영삼



브라질선수와 첫 경기를 하는 문영삼선수

그러나 조선의 바둑은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극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바둑협회가 조직되고 바둑이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국의 학생소년궁전들에 바둑소조를, 중앙과 지방에 바둑구락부와 체육소조들을 조직하여 전도유망한 학생들을 세계적인 바둑명수로 키워가고있다.

본사기자 석 준 학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철 도 망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라진—선봉지구를 포함한 북부지구의 철도망은 지금 형성되여있는 철도륜환망을 리용하여서만도 큰 투자없이 중국과 로씨야 중계화물을 년간 수많이 통과시킬수 있다. 이미 우리 나라의 북부지구에는 주체51(1962)년도에 청진—라진사이의 80키로메터 구간에 새 철길을 놓음으로써 철도륜환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그후 함경북도의 북부지구에 무역화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따라 주체56(1967)년에는 두만강역을 크게 확장하고 웅상지구에 화물련대수송중계장을 꾸리였다. 또한 두만강—라진사이의 50키로메터 구간에 혼합선을 건설하였으며 주체78(1989)년에는 이 혼합선구간을 청진까지 연장하고 청진조차장을 건설하였다.

지금 형성된 함경북도의 북부철도륜환망의 총길이는 405키로메터이며 그중 전기화된 구간은 237키로메터이다. 청진, 라진, 두만강, 상봉, 회령에 기관차대가 있고 청진, 라진, 두만강, 남양에 객화차대가 있으며 청진에는 년 3,000량능력의 화차수리공장이 있다. 북부지구의 철도륜환망은 청진시의 서항과 동항, 라진항, 선봉항과 련결되여있으며 중국과 련결된 남양역과 로씨야와 련결된 두만강역이 국경철도역으로 꾸려졌다.

라진—두만강사이의 철도화물통과능력은 현재보다 약 600만톤을 더 나를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있다.

청진—남양사이의 철도화물통과능력도 약 550만톤의 여유를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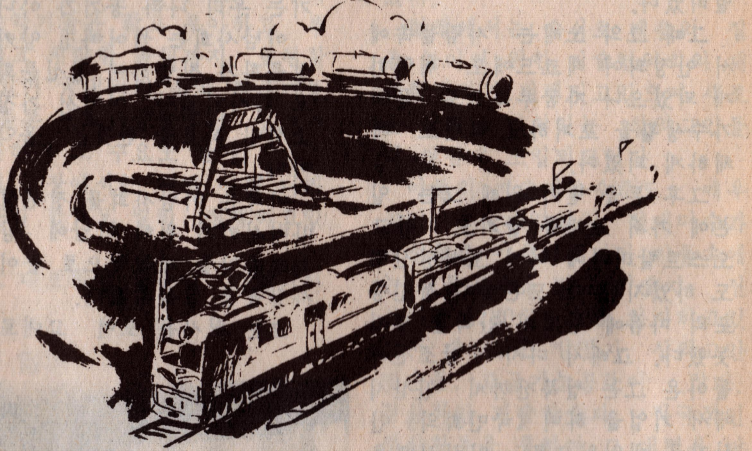
라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창설된것과 관련하여 중계화물통과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북부지구의 철도를 두단계로 나누어 개전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첫단계는 아직 전기화되지 못한 회령—학송사이의 168키로메터구간을 마저 전기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복선공사, 새 철길공사, 다리건설들을 예견하고있다.

둘째단계에서는 고무산— 훈융사이의 169키로메터 구간과 반죽—명호사이의 71키로메터구간에 복선공사를 하고 항과 련결된 역들과 국경역들의 화물취급능력을 높이며 차량시설들을 신설보강하면서 이 지구의 철도망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있다.

이와 함께 청진지구에 년산 1만개능력의 집합공장이 건설되고 전문집합부두건설을 예견하는 조건에서 철도부문에서는 전문집합화차를 생산하고 집합렬차를 편성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예견하고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면 북부지구의 철도망에서 중계화물통과능력은 년 5,000만톤이상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다.



마다가스까르에서

마다가스까르음악록음테프제작소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음악테프를 제작하였다.

테프는 마다가스까르의 독창가이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인 랄리이나리부 노엘 하르베이가 마다가스까르어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르고 마다가스까르관현악단이 연주를 한것을 록음한것이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음악테프는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며 흠모하는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하여 제작되였다.

남조선의 정민동포 의거입북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정민동포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또 의거해왔다.

그는 주체40(1951)년 3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가난한 가정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돈이 없어 대학에는 가지 못하고 목포와 서울 등지에서 술집악사로 악단생활을 하면서 가요창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했다.

1970년대 중반기에 자비로 《청개구리악단》을 조직한 그는 자신이 가수로 활약하면서 나이트클럽, 캬바레 등에서 공연활동을 벌리였다.

그때 그의 노래는 사람들속에서 인정되여 레코드에도 취입하게 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끝내 가수생활을 포기하고 악단도 해체하게 되였다.

그후 돈을 벌기 위해 그는 일본에 가서 노래를 팔기도 하고 오스트랄리아에 나가 보석광산업도 하였지만 그 모든것이 정민동포의 마음에 안정과 안착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남조선에 돌아온 그는 월북전까지 안산시에서 기업을 하며 《국민회의》 안산지구 대의원으로, 안산시체육회 리사로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민동포

그는 월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아시다싶이 지금 이남은 완전히 망했다.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문화도, 도덕도 망했다. 정의라는것은 없다. 연예인으로서 내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것은 이남에서 고유한 민족문화가 말살되고있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적정서가 사멸되고있는것이다.

정치방식으로부터 말과 글, 생활풍조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미국화, 일본화, 서양화되고있다.

이남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땅은 분명 내 나라, 내 땅인데 공기는 우리 나라 공기가 아니다.

이남사회는 썩어빠진 양키식독성문화가 침습하여 정신문화적으로 마비되였다. 여기서 가장 독소적인 작용을 한것은 음악예술이다.

미국은 이남사회를 정신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이남에 양키식독성음악을 계획적으로 들이밀어 사람들을 질식시켰다.

그는 력사를 보면 고대로마나 바빌로니아가 망한것도 정신문화적으로 병들었기때문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북은 어떠한가.

고유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굳건히 지켜지고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가 꽉 차있다. 그야말로 단군민족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차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이북식, 조선식이다.

이북이 이처럼 외색, 외풍에 질식되지 않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지키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게 된것은 바로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과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정치, 우리민족제일주의리념의 결실이라고 본다.

사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시고 내 나라를 빛내이실분은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장군님 계시는곳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해 미력이나마 바치고싶어 이북으로 왔다.

본사기자



평 양 악 기 공 장

우리 나라 악기생산기지의 하나인 평양악기공장은 수도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다.

주체42(1953)년 10월에 조업한 이 공장은 우리 나라 악기공업의 모체로서 나라의 음악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수천여평방메터의 부지에 여러동의 3,4층짜리 생산건물들로 아담하게 일떠서있는 공장에는 준비직장, 손풍금직장, 기타직장, 민족악기직장 등 10여개의 직장들이 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가공, 조립,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는 이곳에서는 가야금, 옥류금, 양금, 저대, 단소, 장새납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민족악기들과 기타, 손풍금 등이 생산되고있다.

악기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것은 손풍금(자호는 《은방울》, 형은 8가지)이다.

판구조를 따로 설치한 41/120 4/5 13+M+4형의 손풍금이 특히 호평을 받고있다. 이 악기로는 호른, 훌류트, 클라리네트, 오보에, 바이올린의 소리도 낼수 있으며 전반뒤부분에는 총개방장치가 있어 연주에도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경쾌한 음색으로 여러가지 연주를 할수 있는 41/120 3/5 7+4형, 37/96 3/5 7+4형 등 손풍금들이 특색있게 제작되고있다.

대중악기의 하나인 기타도 이 공장의 주요생산제품으로 되고있다. 음향적특성이 좋은 최고급의 용재와 과학기술적성과에 토대하여 제작된 이 악기는 음향이나 음색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민족적정서가 넘쳐나는 우리 민족악기들은 맑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처량한 음색까지 표현할수 있어 국내외의 음악 전문가들은 물론 애호가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며 그 수요도 높다.

이 공장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합작도 널리 진행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이딸리아의 쏘프라니(Soprani)회사와 합작하고있는 《E－soprani》 손풍금이다. 이 손풍금은 최근 국제전람회에서 우수한 악기로 평가되였다.

지금 아세아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고있다.

공장에서는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악기제작을 단순히 생산로동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간주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예술의 창조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해가고있다.

제품의 질제고와 생산장성에 언제나 큰 힘을 넣고있는 이곳 악기생산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현장에서는 수시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의회와 제품합평회가 진행되고있으며 새로운 발명과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고있다.

이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매우 높다. 공장종업원의 절대다수가 녀성들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속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30%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재능있는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 고급기능공들이 많다. 정상적인 기술학습과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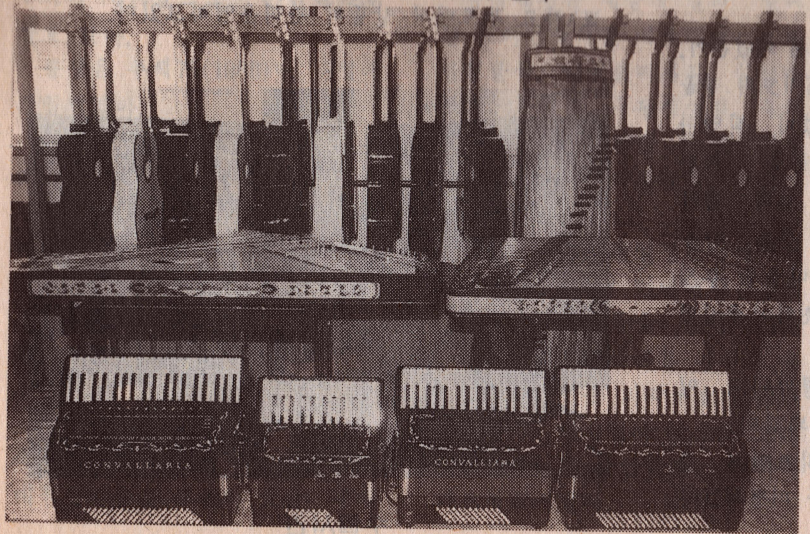
바로 이들의 고상한 정신과 높은 문화성, 훌륭한 기술기능수준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성이 담보되고있으며 공장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얼마전에 4,800평방메터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분공장이 새로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평양악기공장의 로동계급은 가까운 앞날에 악기생산을 지금보다 2배이상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 눈부신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대 호

생산된 악기들의 일부



은 덕 분 교



은덕분교의 일부

우리 나라 도시에는 물론 심심산골과 외진 섬에도 각급 학교들이 세워져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있다. 황해북도 서흥군 남산동에 있는 《은덕분교》도 그런 학교들중의 하나이다.

분교는 비록 아담한 단층으로 되였지만 이곳에는 근 50년의 교육년한을 가진 교장 리대순을 비롯하여 유능한 교원들이 교단에 서있으며 5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등 현대적인 교육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분교주변에는 1.5정보의 교재림이 훌륭히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잣나무, 호두나무, 감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파일나무들이 수림을 이루었고 은방울꽃, 도라지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꽃들이 화원을 이루고있다.

분교에서는 현재까지 120여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키였는데 그들은 현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헌신하고있다.

하다면 《은덕분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였는가.

어느해 겨울날이였다.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가없이 적막한 고장이였던 남산동일대에 이고장 인민들을 위한 문화주택을 짓도록 터전을 잡아주시고 친히 샘터까지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산동에 새 마을을 꾸릴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시였다.

마침내 남산동일대에는 새 마을이 생겨나고 인민들이 은정어린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였다.

이곳 인민들은 마을에 문화주택을 지으면서 충효의 한마음을 담아 아담한 집 한채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늘 차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줴기밥으로 때식을 에우시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잠시나마 이곳에 모시고싶어서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중 이곳 남산동마을에 오시였다.

이곳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야 아무데서나 쉰들 뭐라는가고 하시면서 고개넘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멀지 않은 통학길을 념려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집을 분교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부터 생각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마침내 주체71(1982)년 2월에 만사람들의 축복속에 분교가 개교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4월에는 10종에 110여가지의 동식물표본까지 친히 보내주시였다. 이곳 인민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분교를 《은덕분교》라고 부르면서 알뜰히 관리운영하고있다.



수업시간



자연에 대한 관찰을 실속있게

만 년 제 약 공 장

우리 인민의 건강보호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보약과 의약품들을 만들어내는 고려약생산기지들중에는 평양시 대성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만년제약공장도 있다.

공장은 주체75(1986)년 8월에 건립되였다.

2층의 기본생산건물과 여러동의 보조건물들로 이루어진 이 공장에서는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천궁, 당귀, 백복령, 감초, 도라지, 창출, 인삼, 산삼, 꿀 등 고려약재를 가지고 약효능이 높은 수많은 고려약과 보약들을 생산하고있다.

고압증기멸균기, 증류수기, 농축가마, 환제기 등 100여대의 현대적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공장에는 원료세척으로부터 건조, 분쇄, 혼합, 알빚기를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여있다.

공장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차를 비롯하여 고려원형꿀삼, 인삼오미자차, 십전대보환, 륙미환, 우황청심환, 돌외차, 백룡향, 당향환 등 40여가지의 보약들과 의약품들을 만들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만년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우리 나라 고려약재를 가지고 우리 식대로 만든 의약품들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고려약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만년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보약들과 고려약들은 약효가 높은것으로 하여 대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고려인삼차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유명한 인삼과 산삼으로 만든 약들과 차제품들은 큰 호평을 받고있다. 체스꼬, 중국, 타이, 로씨야 등 아세아와 구라파지역들에서 그 수요가 높다.

오늘도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무병장수에 좋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삶의 터전

사람은 누구나 삶의 터전을 갖고있다. 삶의 터전없는 인생이란 있을수 없다. 풍파사나운 20세기의 말기에 이르른 오늘 이 지구촌에는 이러저러한 불우한 곡절로 하여 제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낯설은 이역땅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억을 헤아린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지난날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하여 제 땅에서 쫓겨 최악의 수난자가 되여 지구의 동서반구에 흩어져사는 동포들이 500만이나 된다. 하지만 그들모두에게도 삶의 정든 터전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다.》

삶의 터전, 그속에서 사람들 개개의 운명이 움트고 꽃펴났거늘.

정녕 조국과 민족은 민족성원모두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둘러보면 세상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 우리 인민처럼 유구반만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도덕의리에 밝은 인민은 드물다.

우리 인민은 남달리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존엄과 넋이 남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우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근면하고 성실한 로동으로 민족번영의 길을 개척해왔으며 수시로 덤벼든 침략자들과 생사결단하고 싸워 나라를 수호해온 우리 인민이다.

수난에 찬 과거사의 갈피갈피를 가슴뜨거이 번져보자.

망국의 심야에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리던 나날 의병들이 울분의 칼을 갈았고 독립군이 화승총성을 울린것도 겨레의 삶의 터전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눈내리는 포평나루터에 광복필승의 성스러운 맹세를 남기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장장 20성상 항일혁명을 벌리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재생시키신것도 우리 인민에게 삶의 터전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였다.

정녕 수령님은 조국의 운명을 건져주신 위대한 구원자이시고 민족재생의 영원한 은인이시며 이 땅우에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있기에 해외동포들은 눈내리는 이역땅 부두가에서도 만나자바람으로 친혈육인양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움에 눈굽을 찍는것이며 찬비뿌리는 이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어디선가 《아리랑》곡조가 들려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두고온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려보는것이다.

더더욱 조국을 방문한바 있는 해외동포들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즐거운 추억만을 불러주며 가슴부풀게 하는 내 나라, 슬기로운 민족의 의젓한 실상이 있어 꿈결에도 소리쳐 참된 삶의 그 터전을 안아보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겨레 개개의 운명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여있을진대 해외동포모두가 **김일성**민족의 일원임을 자부함은 너무도 응당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국토분단으로 하여 겨레에게 들씌워진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생각하며 가슴 쩌릿이 젖어듬을 금치 못한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없이 계급과 계층의 리익도 도모할수 없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기대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 속에 매 사람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창창한 미래가 기약되여있는것이다.

재중동포 최은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심장은 민족성원의 삶의 터전인 조국과 겨레의 품에 두고 삽니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주시는 내 나라,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결심밑에 애국, 애족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렵니다.》

로 재 룡

상봉

지난해 8월 평양고려호텔에서 재중동포들이 혈육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8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국을 찾았던 재중동포들은 그리운 친척들과 만나 뜨거운 회포를 나누었다.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이모와 만난 류춘희동포

흑룡강성 가목사시에서 살고있는 류춘희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성북종합진료소 약국장으로 일하고있는 이모 한숙경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벌써 몇해째 8월마다 만나는 이들이건만 만날수록 회포는 더욱 커지고 뜨거워지는것이다.

이모 한숙경은 조카 류춘희에게 말했다.

《네가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 네 시절에 너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극성이고 열성분자였단다. …》

류춘희동포의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후 함흥제사공장에서 로동하였다. 춘희동포의 어머니는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그 벅찬 시기에 일떠서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밤낮없이 일하며 제사공장의 모범로동자로 이름떨치였다.

그리하여 주체45(1956)년도에 열린 전국경공업부문 일군들의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고 국가표창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런 조국의 녀성모범로동자였던 어머니이기에 류춘희동포에게는 어머니가 더없이 귀중했고 그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것이 조국을 위한 옳은 길임을 자각하게 되였다.

그래서 춘희동포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발벗고나섰던것이다. 해외공민조직사업에도 언제나 모든 가정사도 뒤로 미루고 앞장에서 솔선 모범을 보여온 그였다. 그의 열성을 지지하며 적극 뒤받침하는것이 그의 어머니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과 가정사는 내가 다 맡겠으니 념려말고 조국을 위한 사업에 온갖 정열과 지성을 다 바쳐 일하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또 조국을 찾게 된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류춘희동포에게 이모 한숙경은 《옳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 한치의 드팀도 없어야 한다. 오늘뿐만아니라 앞으로두 그리고 영원히 말이다. …》

류춘희동포는 대답대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떡이였다.

× × ×



김정순동포가 딸과 만났다.

이외에도 연길시 연서가에서 살고있는 김정순동포는 김책시에서 탁아소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딸 박순옥을,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살고있는 조봉숙동포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고있는 시형을 만나 뜨거운 혈육의 감정을 나누며 밤지새는줄 모르며 만남을 두터이하였다.

본사기자 김주향

인상기

민족의 자랑이며 재부입니다

고국방문기간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참관도 참 인상적이였어요.

그곳을 참관하면서 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부풀어오름을 새삼스러이 느꼈어요.

만수대창작사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이름있는 창작가, 재능있는 기술자들과 수천명의 종업원을 가진 세계적인 대미술창작기지였어요.

창작사구내중심에는 2층으로 된 미술작품전시관이 꾸려져있고 여기에는 수천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여있는데 참으로 말로써는 다 형언하기 어려운 높은 예술적경지를 이룬 작품들이 찾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는 고국을 알게 하고 고국의 절경과 신비경, 명승유적들에 대한 화폭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게 하는것으로써 민족의 넋을 새롭게 불러주며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게 하는 참으로 의의있는 참관지였어요.

창작사에서는 지금까지 회화, 조각, 도자기, 수공예, 조선보석화 등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창작사의 창작가들은 만수대기념비와 주체사상탑, 개선문,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지하철도벽화들 그리고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 등의 조각장식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전국각지에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는데서 큰 몫을 하였다고 합니다.

만수대창작사는 그 업적과 명성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술전시회를 가지면 미술가들과 애호가들,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고 합니다.

참으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하는 민족의 큰 자랑이며 재부라고 생각되였어요.

그러므로 나는 고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에게 만수대창작사를 꼭 참관하라고 말하고싶어요.

창작사에는 고려무역상사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청탁하는 동상, 기념비적건축물들, 미술작품들을 건립, 제작하여줌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기교를 세계에 파급하며 친선을 두터이 하는데 기여하고있었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미술작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에 들렸습니다. 진렬된 상품들이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와 모두 가지고가고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 없어 몇개의 기념품만 사들고 떠나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민족의 넋이 어린 도자기매대를 배경으로 사진 한장 척 남겼답니다.

싸할린주 유즈노싸할린스크시
김 기 자

민요 《닐리리야》

《닐리리야》는 우리 나라 중부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서정민요의 하나이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여러가지 가사들이 생겨났는데 기본으로 되는것은 남녀사이의 애정관계를 노래한것이다. 가사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닐리리야》, 《니나니난실》 등 별뜻이 없는 흥취나는 어구들을 끼워넣은것이다. 따라서 《닐리리야》에서는 가사의 내용보다도 선률형상이 더 강한것을 느낄수 있다.

선률은 음률이 단순하고 그 흐름이 순조로우므로 부드럽고 연한 우리 민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있다. 《닐리리야》의 음악형상구조에서 특징적인것은 고조부가 처음에 놓이며 후반부에서는 더욱 류창하면서도 완만해지는것이다.

민요 《닐리리야》는 제창으로 많이 불리웠고 춤곡으로도 리용되였다. 《닐리리야》는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형되고있다.

민요무곡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있는 강원도지방의 《닐리리타령》, 북청지방의 《북청닐리리》 등은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닐리리야》는 해방후 합창곡으로 편곡되여 불리웠고 그의 우수한 특징들은 오늘 창작되는 가요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집가 36-5 한응봉 외삼촌 앞

새해엔 고국방문 하시기를

존경하는 외삼촌, 외삼촌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한없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혈육의 정을 보다 더 두터이한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 주체87(1998)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과 그곳에 계시는 그리운 친척들, 다정한 이웃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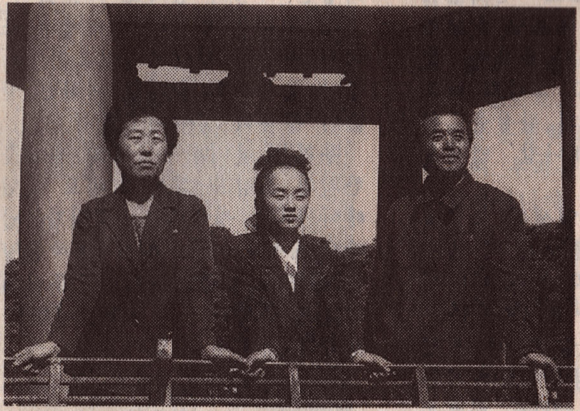
언제나 그러하지만 해마다 설날이 오면 이국의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얼마전에도 온 집안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설명절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는 젖어드는 목소리로 《설이되여오니 외삼촌이랑 모두가 더 보고싶구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그곳에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삼촌이 인츰 고국방문의 기회를 마련하겠단다고 했더니 손꼽아 기다리시는듯 최근엔 입버릇처럼 외우군한답니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누구보다 그리움이 더해지겠지요.

외삼촌, 소원대로 올해엔 고국에 오십시오.

송죽이, 송산이 그리고 철수 모두들 고국방문을 열렬히 희망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오십시오.

어머니도 만나보시고 우리 집에도 들리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고국의 자랑찬 모습도 보십시오.

외삼촌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고국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곤난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누구하나 주저앉거나 비관하지 않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두다 올해의 〈고난의 행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붉은기를 내리우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고 힘찬 진군을 다그쳤습니다. 우리 가정도 조국의 이 벅찬 진군길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더 분발하였습니다.



김형옥의 가정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주인은 최근에 보다 생산성높고 가치있는 창의고안을 하여 기업소적으로 크게 소개되였답니다. 정말 새것을 연구해낸다는것이 말이 쉽지 헐치 않더군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낮에 밤을 이어 고심하는 그 정상이 측은하여 한번은 지나가는 소리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고 하였더니 주인은 저를 질책하며 《나라에서는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돈한푼 받지 않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고 오늘은 이렇게 기사로 내세워주었소. 그런 내가 이쯤한 난관도 달게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리가 있는 인간이겠소.》하더군요. 끝내는 성공하였지요. 저와 딸은주는 물론 온 기업소가 관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축하해주고 이웃들에서도 자기일처럼 기뻐해주었답니다. 제철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아들 철민이는 학교를 졸업하면 조국보위초소에 섰다가 돌아와 자기도 아버지가 일하는 기업소에서 일하겠다고 마음먹고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모두가 한일터에서 조국을 강철로 떠받드는 가정으로 된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 진군대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총비서로 높이 모신 이 영광, 이 자랑을 가슴에 안고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일해나갈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온 나라 매 가정, 매 사람들의 결심이기도 할것입니다.

외삼촌, 새해엔 고국방문하십시오.

얼마전에 고향을 찾아 이곳에 와서 혈육들도 만나고 생기발랄한 현실도 체험한 한 해외동포는 그곳에서 듣던것과는 과연 다르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외삼촌이 직접 와서 보게 된다면 고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그럼 고국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외삼촌을 비롯한 그곳의 혈육들이 고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펜을 놓습니다.

온 가족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남포동 2인민반
김형옥조카 올립니다.

수필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크라스노다르 지부장 김영수는 본사편집부앞으로 수필을 써서 보내여왔다.
아래에 그의 글을 소개한다.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근로자들

우리 독립국가협동체 조선인조국방문단은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였다.

방문나날 가장 인상깊은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금수산기념궁전 참관이였다고.

7월 18일, 우리 방문단성원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관하였다.

이곳으로는 우리뿐만이 아닌 공화국의 여러 계층의 근로자들과 해외 및 외국 대표단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었다.

궤도전차의 경쾌한 동음소리를 들으며 기념궁전으로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사뭇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이 감정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홀에 들어서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를 때 절정에 달하였다.

조국의 한 일군은 7월의 비통한 그날로부터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뵈온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생전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길이길이 모시게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우러르며 다지는 불같은 이 맹세들은 우리 동포들의 가슴마다에도 그대로 뜨겁게 굽이치였다.

우리 방문단성원들 역시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는 수령님을 뵈오면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로정을 마음속으로나마 아뢰이였다.

어버이수령님,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명심하고 지난 한해동안 동포들에게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그 방도를 알려주기 위한 선전사업을 벌려왔습니다.

우리들이 조국을 찾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다시금 뵈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충효세계를 심장에 새길수록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을 다시금 금할수 없었다.

정녕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충효세계를 보여주는 축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 금수산지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덕망을 보여주는 상상봉으로서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 깊은곳에 소중히 자리잡은 혁명의 성지로 되고있다.

이 뜻깊은 주체의 성지에서 조국의 새날이 밝아오고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충성의 대하는 끝없이 용용히 굽이치고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며 우리의 미래도 언제나 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수기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국땅 유서깊은 길림에 온지도 벌써 30여년이 됩니다. 감회깊은 회억들은 어제일과도 같이 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멀리 이국땅에 와서도 저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않고 떳떳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이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을 맞이할 때부터 영광스럽게도 북산학습조 책임을 지고 일하였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송화강과 혁명의 성지 북산공원사이에 있는 길림육문중학교 앞뜰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은 항상 우리 해외동포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수령님 동상을 여기에 모시고 사는 자부심과 긍지에 충만됩니다.

해마다 우리는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꽃바구니를 정성들여 준비하여 수령님동상앞에 올렸고 수령님을 끝없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기쁘고 자랑스럽던 일이 지금도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최영자

저는 그때마다 손자의 손목을 이끌고 나가군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네살때부터 데리고다니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꽃바구니를 올리군하였습니다. 정말 저의 일생에서 제일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이였습니다.

아! 그런데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무서운 비보의 소식에 하늘땅이 맞붙은것 같았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온 식구는 추모사업에 최대의 경모와 진정을 담아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저하나만 조선공민이고 아들 세식구는 중국공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조선사람입니다.

이 넋만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식구는 마음을 합쳐 추모회기금도 마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식에 참가하였던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있으며 지금도 앞으로도영원히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 앞뜰에 높이 서계시여 우리를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저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매달 8일이면 꼭 수령님동상을 찾아 인사를 올리고 꽃다발을 올리였으며 동상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국에서 100일제에도 참가하여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수령님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해외공민들을 그처럼 친자식으로 여기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수령님께 응당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꼭 닮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정이 담겨진 선물까지 저에게 안겨주시였습니다.

저의 심정,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이 재해로 겪는 난관에 다소나마 지원하려고 정성금마련사업에 애써 참가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가는 손자는 명절에 받은 세배돈을 꼭꼭 모아두었다가 재해지원사업에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국땅에 있으나 외롭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우리들을 억센 의지와 투지를 가진 인민으로 참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은 고매한 덕성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보살펴주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 혁명의 사적지 길림에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그 영광을 길이길이 빛내일것입니다.

재중동포 최영자

고향소식

《어리벙벙…》

북청군 룡전리는 갖가지 과일이 많이 나기로 소문이 났다.

지난해 봄, 룡전마을은 여느해와는 달리 과일꽃이 많이 피여 아름다운 꽃속에 묻히게 되였다.

이 좋은 꽃계절에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살고있는 김두천동포는 10대 소년기에 떠나간 고향 룡전마을을 찾았다.

문화회관앞에서 멈춰선 승용차에서 내린 백발의 로인은 감회젖은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배꼽밑으로 처져내리는 바지춤을 쥐여잡고 앞벌의 남대천이며 뒤산의 두룽봉을 헐떡벌떡이며 쏘다니던 그때의 옛 자취를 찾느라고 더듬었던것이다.

허나 눈앞에 보이는건 희고 붉은 꽃이요, 윙윙 꿀을 나르기에 분주탕을 피우는 벌떼뿐이다.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찔러 취하게 한다.

반세기도 훨씬 넘긴 오늘에 조상의 묘가 있고 생의 뿌리가 내린 고향을 찾아오는 로인은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하여 그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기억에 생동한 고향산천에 대하여 곰살한 안내원처녀에게 줄곧 이야기하여주었다.

그러나 고향마을에 온 로인은 금시 벙어리가 된듯 입만 하 벌리고 눈만 끔벅이였다.

두룽봉은 어디에 솟았고 남대천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갖가지 파일나무만 숲을 이룬 고장에서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인지 가늠이 안간다.

내 고향집이 어디에 앉았던고, 아무리 눈여겨 살펴도 만발한 꽃밭속에서 눈익은곳이나 표적은 찾기가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강산이 변한다 해도 이렇게 달라질수가 있단말인가. 혹여 내가 고향을 잘못 찾아온게 아닌가. 로인은 더럭 품게 되는 의혹에 주춤 굳어지기도 하였다.

고향집이 있던 두룽봉기슭에는 2층살림집과 기와집들이 덩실하니 들어앉았다.

관리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두룽봉에 오르며 층층다락을 이룬 파일밭을 보던 로인은 무릎을 철썩쳤다.

《허, 두룽봉에 파일나무숲이 우거졌으니 내가 어리벙벙해질수밖에…》

두룽봉에 오른 김동포는 마음이 후련해서 고향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갖가지 파일꽃으로 단장을 한 마을앞으로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 룡전벌이 길게 누워있고 그 앞쪽으로 남대천이 흐른다.

남대천을 따라 길게 쌓은 제방뚝에는 소며 염소떼가 쭉 깔려 한가스레 풀을 뜯는다.

풍요하고도 정겨운 고향마을의 경치이다.

내 세월을 거슬러 송아지시절로 돌아갈수만 있다면 남대천에서 물장구도 치고 제방뚝잔디밭에서 마음껏 뒹굴련만 이 머리에는 야속하게도 흰서리가 내불렸구나.

로인의 눈굽에는 눈물이 질꺽히 고이였다.

그의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조용히 새여나왔다.

《변했어.… 너무도 달라졌어. …그러니 어리벙벙할수밖에…》

그날 김동포는 동향인들하고도 상봉하였다.

가난에 눌리워 늘 머리가 텁수해서 다니던 우물집 쇠돌이는 농업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문화협동농장의 고문관리위원장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목에서 쟁쟁한 쇠소리가 난다.

안내원처녀의 말인즉 고문관리위원장은 로력영웅인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사업까지 하였다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면 저쪽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인데 나같은 존재는 그 《나으리》들의 발뒤축도 바라보지 못한다.

산천도 사람도 영 딴판으로 달라졌다.

《어리벙벙…》 로인은 그후에도 몇번이나 이 말을 곱씹었는지 모른다.

고향마을을 떠날 때 김동포는 봄날의 파일화원도 좋지만 갖가지 파일이 무르익은 가을계절의 고향은 더 좋을것이라고, 그때에 다시 오겠노라 약속을 하고 아쉬운 걸음을 떼였다.

울긋불긋 익은 탐스런 사과가 주렁지는 가을,

향긋한 사과향기가 금시에 물씬 코를 찌르는 이맘때면 고향마을을 다시 찾겠다던 《어리벙벙》로인이 다시 룡전리에 왔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떠랴. 그의 마음속에 오늘의 고향마을이 고이 간직되여있는데야.

본사기자 조 열

북청군 룡전마을



꽃보다 곱고 아름다운것은



조상숙

올해에 나이 69살에 이른 조상숙동포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얼굴인상과 다름없이 성미도 차분하고 선량한 할머니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육체와 함께 감정도 메말라간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밝고 다감한 정서의 세계가 고이 간직되여있다.

지난 7월초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년상을 며칠 앞두고 있은 일이다.

신의주에 도착하여 하루밤을 보낸 조상숙동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단동에서 정성껏 준비하여가지고 나온 꽃들이 찌는듯한 무더위에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것이였다.

그는 꽃에 영양소를 넣은 찬물을 갈아주고 선선한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청신감과 생기가 없어보였다.

천만가지의 아름다운 꽃속에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싶은 간절한 그의 마음에는 자그마한 흠이라도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조상숙동포는 후회가 컸다.

려행길에서 오는 피로에 몰려 그만 날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느때와 다름없이 꽃을 보관하고 잠을 잔 자기가 미워졌다.

조상숙동포가 상심해있는것을 본 친척들과 이웃들은 새 꽃을 구해올터이니 너무 속상해말라고 위로하였다.

이때 그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단동에 있는 셋째딸 정화에게 련락하여 새 꽃을 준비해오면 어떨가.

문제는 시간보장이다.

단동시를 훑어가며 제일 곱고 아름다운 꽃을 구해가지고 국경을 넘자면 시간이 걸려야 한다.

과연 래일저녁까지 도착해볼수 있을가.

조국의 일이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딸이기에 어머니의 절절한 부탁을 들어줄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조동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국경체신소에 달려간 그는 딸을 찾아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애야, 만사를 제쳐놓고 꽃을 보내야 한다. 난 우리 집안의 정성이 담긴 꽃바구니를 수령님께 드리고싶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자 이 딸의 마음이예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다음날 7월 7일 오후 조상숙동포는 신의주세관으로 나갔다.

국경다리를 넘어오는 차들을 살피며 이제나저제나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조바심으로 타들었다.

혹여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겨 랑패를 본게 아닐가?

별의별 억측이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다.

내 몇번이고 이날을 기다려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되는데 한송이꽃도 드리지 못하다니.

조동포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이때 등뒤에서 셋째딸 정화의 맑고 부드러운 음성이 울렸다.

《어머니!》

《엉?!》 조동포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정화일가. 반신반의하며 얼굴을 돌린 그에게로 아름이 넘쳐나게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안은 셋째딸이 달려왔다.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입속으로 뇌이였다.

꽃보다 곱고 아름다운것은 어머니와 딸의 충효의 마음이라고.

간기능을 왕성하게 하는 초마늘

초마늘은 간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간장질병을 예방한다. 마늘의 효과는 병난 다음보다 예방의 단계에서 더 뚜렷하다.

식초자체가 몸에 좋기때문에 초마늘의 효과는 더욱 크다.

간이 약해지는것을 막아내고 간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좋은것이 마늘인데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의 독풀이의 기능을 뚜렷이 높여준다.

마늘에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물속에 있는 몸에 해로운 유독성물질들이 장벽으로부터 흡수되는것을 막는 작용이 있으므로 마늘은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수 있다. 마늘은 식초에 절임해두면 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는 얼마전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한 귀국동포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책임일군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수록 참된 애국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화폭이였다.

황금이 행복의 증권인가

주체51(1962)년 9월 청진항은 여느때없이 흥성이고있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는 재일귀국동포들을 실은 귀국선이 부두에 와닿은것이였다.

무한한 감격과 흥분, 격정으로 하여 도가니처럼 끓는 사람들속에서 류다른 《상봉》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니 양복저고리랑 시계랑 짐은 다 어떻게 하고…》

《그것들이 다 이안에 들어있소. 큰 보물이 되여 여기에 있소.》

두팔을 걷어붙인 와이샤쯔바람에 트렁크 두개를 들고 웃으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고 안해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안해인 전순옥녀성은 석달전에 제93차 귀국선으로 한발 먼저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그때 남편인 리경행동포는 꼭 볼일이 있어 좀 늦게 귀국하겠다고 하였던것이였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면서도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트렁크를 열던 전순옥녀성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트렁크속에는 조국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들어있는것이였다.

(그러니 남편이 이것들때문에…)

원래 이들가족은 함께 귀국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한참 가산을 정리하며 귀국준비를 하던 리경행동포는 조국에서 략탈당한 귀중한 문화재들이 일본의 어느 한 민간인의 손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의 심장은 끓어올랐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유물이 곁에 있는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는것은 죄악이다. 내 기어이 찾아오고야말리라. 경행동포는 자기의 결심을 총련 도꾜도 시부세지부의 조직부장이며 귀국성원들의 부단장이였던 안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것이였다.

니이가다항에서 귀국하는 가족들을 바래우고난 경행동포는 즉시 우리 나라의 문화재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리조시기의 아악보를 보관하고있는 한 일본인에게 접근하게 되였다.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그 일본인은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는 집과 가산을 판 돈을 다 찔러주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안해가 결혼기념으로 준 금시계와 입고있던 양복저고리까지 벗어팔았다. 이렇게 되여 《조선아악》을 손에 쥐게 되였을 때 그는 너무 기뻐 밤잠을 다 자지 못하였다.

어느날 그에게 일본의 한 음악평론가가 찾아왔다. 리조 500여년간의 음악예술사가 기록되여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 거금을 잡을수 있는데 귀국하지 말고 돈이나 벌자는 《권고》였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재부를 팔아 누리는 《행복》보다 차라리 거지가 되여도 조국을 위해 깨끗한 애국심을 바쳐가는 량심의 《억만장자》가 되려는 결심밑에 애국의 길로 신념에 찬 걸음을 옮기였다.

부피도 크지 않고 무게도 많지 않은 두개의 트렁크, 하지만 거기에는 천만금으로도 그 가치를 헤아릴수 없는 리경행동포의 숭고한 애국심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애국의 넋

리경행동포는 해방전 전라북도 순창군의 어느 한 빈농가에서 출생하였다.

그후 일제의 징용에 걸려 홋가이도의 고역장으로 끌려가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는 렬차에서 뛰여내렸다. 다행히도 부상을 입고 도꾜근방의 어느 한 조선사람에 의하여 생명은 구원되였으나 넝마주이와 물고기밸을 실어나르는 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속에서도 그는 항간에서 전설처럼 들려오는 항일무장투쟁이야기를 들으며 백두산을 우러러 애국의 넋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리경행동포는 한 일본인의 집에서 나딩구는 진귀한 리조백자기를 보게 되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의 비극적운명인양 이리저리 굴리우는 조국의 문화재를 보니 제 살점이 뜯기우는것 같아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민간단체인 물질문화보존협회를 조직하고 일본땅의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조국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그는 제국주의일본의 거물로 있다가 국제재판에 의하여 에이급전범자로 판결된 일제의 한 우두머리가 값비싼 유물자료들을 수많이 략탈하여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자의 수중에 있는 유물과 자료들을 찾아내는것을 리경행동포는 조국이 자기에게 준 신성한 의무로 스스로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물질문화보존협회 성원의 자격으로 7만권에 달하는 그자의 장서를 정리할 기회를 가지게 되였으며 수많은 자료들을 찾게 되였다. 두자동차분의 자료들가운데는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력사와 일제의 조선침략자료를 비롯한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조국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수집하면서 그는 김옥균의 자필로 된 족자와 16세기 률곡 리이의 자필로 된 족자, 일제가 작성한 우리 나라 지하자원도 등도 얻어낼수 있었다.

이것은 그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다.

애국심,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고 조국의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평범한 한 재일동포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듯 고귀한 열매를 맺은것이였다.

—한생을 력사유물수집사업에 바쳐 **김일성**조선의 오랜 력사와 슬기를 떨치는데 이바지하리라.—

이것이 귀국후에도 리경행부부의 드놀지 않는 신조였다.

오래동안 안주견직공장에서 직맹위원장, 로동과장으로 사업하면서도 리경행동포는 여가에 력사유물발굴수집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였다.

언제인가는 60여리의 밤길을 걸어 정주시의 어느 한 주민이 우리 나라에 목화씨를 퍼뜨린 문익점이 살던 지방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16세기 목화씨를 뽑던 씨아를 건사하고있는것을 보고 그 가치를 잘 가르쳐주어 나라에 바치도록 설득시키였다.

년로보장을 받은 다음에도 리경행동포는 전순옥녀성과 더욱더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였다.

그 길에서 이들부부는 요덕군에 사는 한 주민이 대를 이어가며 건사하고있던 기원전시기의 귀중한 락랑기와를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국보적가치가 큰 유물을 찾아낸 기쁨에 어린애처럼 좋아하며 몇번씩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부부의 뜨거운 애국심에 깊은 감동을 느끼였다.

리경행, 전순옥부부는 이렇게 애써 수집한 유물자료들을 주체81(1992)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214점, 올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5돐을 맞으며 155점을 나라에 기증하였다. 거기에는 《조선아악》을 비롯하여 고려청자기, 리조백자기류 등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들이 들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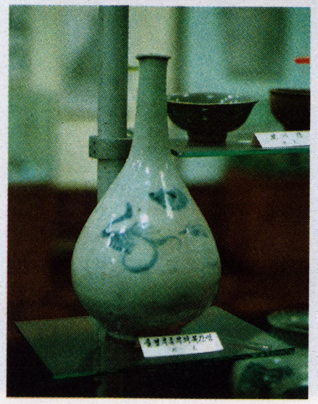
리경행영웅과 그의 안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들부부의 애국적소행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리경행, 전순옥동포들이 기증한 유물전시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리경행동포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여주시고 전순옥녀성에게도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황금이냐, 애국이냐. 의미깊은 이 물음을 두고 우리는 문화재에 비낀 이들 귀국동포부부의 고결한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겨본다.

본사기자 김 금 숙

풀잎푸른무늬목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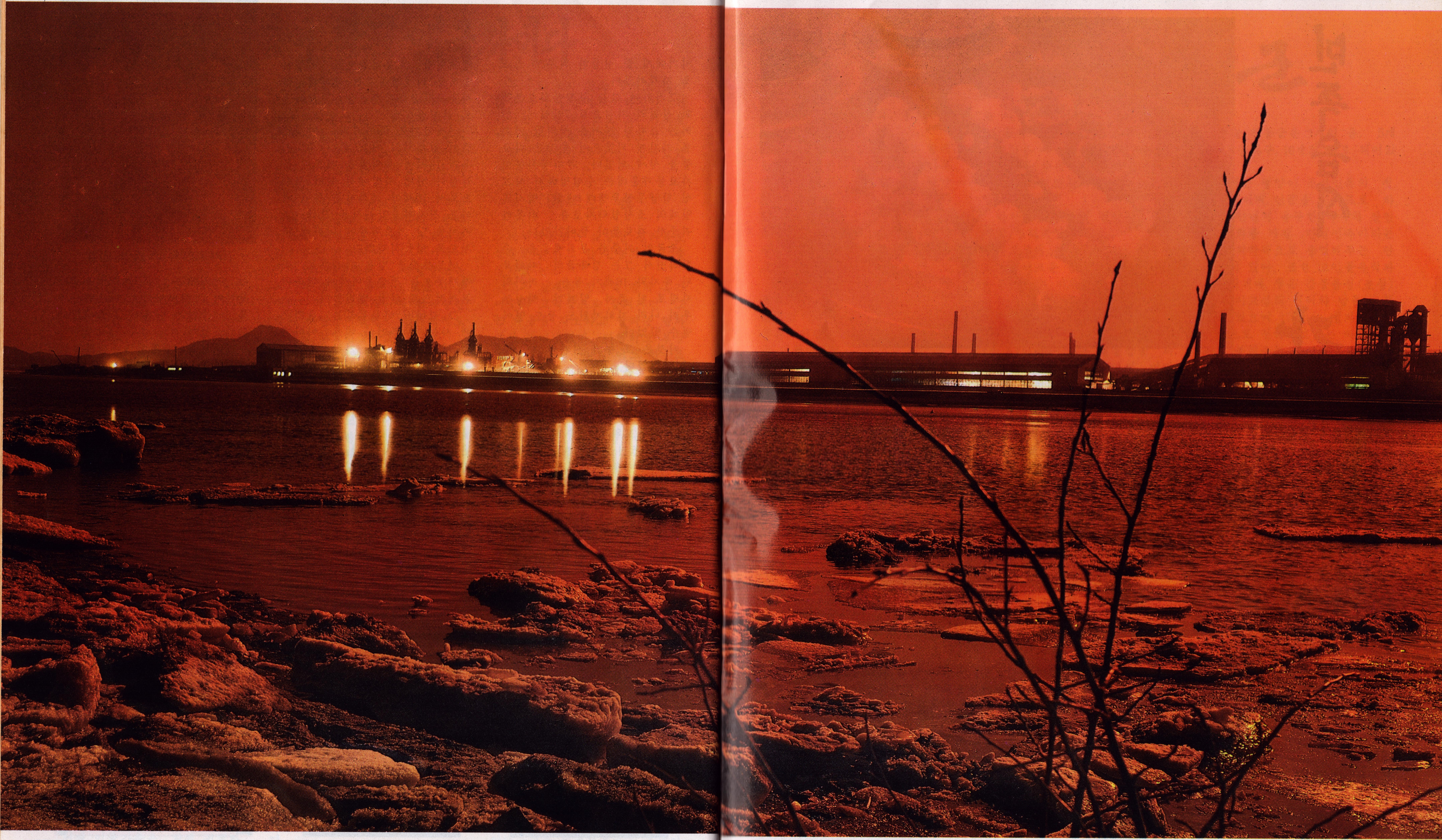


봉황푸른무늬단지



석간주단지





강선의 저녁

민족음식



각색회

△ 재료

- 소양 ………………………… 150g
- 소처녑 ……………………… 150g
- 소간 ………………………… 150g
- 소염통 ……………………… 150g
- 소콩팥 ……………………… 100g
- 깨소금 ……………………… 3g
- 초고추장 …………………… 10g
- 참기름 ……………………… 5g
- 후추가루 …………………… 0.3g
- 겨자 ………………………… 5g
- 잣 …………………………… 10g

△ 만드는 방법

① 소양, 간, 처녑은 얇게 저며서 깨소금, 참기름, 후추가루를 넣고 무친다.

② 염통과 콩팥은 가늘게 썰어 깨소금과 참기름에 무친다.

③ 소양, 간, 처녑에 잣을 한알씩 넣고 말아서 접시에 담은 다음 염통과 콩팥을 옆에 놓고 초고추장, 겨자와 같이 낸다.

지명유래

강동군

강동군은 평양시의 동북쪽에 있는 군이다.

고려이전에는 송양이라고 불러왔다. 송양이라는 이름은 소나무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인데 옛날 이 지방에 존재했던 소국의 하나인 비류국의 도읍지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비류국의 마지막 왕인 송양왕의 왕호를 따서 송양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1136년에 서경(평양)을 6개의 현으로 나눌 때 평양동촌지역에 있었던 잉을사향, 반석촌, 박달곶촌, 마탄촌을 통합하여 강동현을 내왔다.

강동이란 이름은 대동강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다 하여 붙인것이다.

그후 여러차례의 변동은 있었으나 1896년부터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되였다가 주체72(1983)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하여 평양시 강동군으로 되였다.

잉을사향은 오늘의 강동군 룡흥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잉을》은 강을 의미하던 옛날말 《나리》를 리두로 적은것이고 《사》는 마을을 의미하는 글자이므로 《잉을사》는 《나리마을》 즉 강을 끼고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향》은 중세시기 우리 나라에서 행정구역단위의 하나로 쓰인 말이다.

반석촌은 오늘의 평양시 삼석구역 광덕리일대이다.

예로부터 이 지방에는 아름답고 무늬고운 돌들이 많았다 하여 아롱 반(斑)자와 돌 석(石)자를 써서 반석이라고 하였다.

박달곶촌은 오늘의 강동군 향목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곶촌》이라는 말은 대동강을 끼고있는 이곳 지형이 마치 바다로 쭉 뻗어나간 《곶》과 같기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박달》은 박달임금인 단군이 태여난 태백산을 끼고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인것이다.

마탄촌은 오늘의 평양시 승호구역 봉도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말이 헤염치지 않고 건너다녔다는 말여울을 끼고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탄(馬灘)이라고 불렀다.

오늘 강동군은 1개의 읍, 5개의 로동자구, 16개의 리로 되여있다.

군에는 평양이 조선민족의 첫 발상지이며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단군릉이 있다. 또한 고인돌유적과 고려시기에 쌓은 강동읍성(토성)터와 마고성의 성터와 남문, 북문이 있으며 1736년 병자전쟁때의것으로 전해지고있는 바위성이라고 불리우는 성터가 보존되여 있다.

천연기념물로서 약 700여년 묵은 《강동참나무》가 있다.

강동읍은 군의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치우쳐있는 군의 소재지이다. 주체41(1952)년에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면 아달리, 지폐리, 칠포리, 송학리를 합쳐서 내온 읍이다.

본사기자

심장과 피줄

사람들은 흔히 자기 몸에서 제일 귀중한것을 심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기때문일것이다.

사람의 심장은 태여나는 순간부터 생이 끝날 때까지 부단히 높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주므로 《뽐프》라고도 말할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수리》하지 않고도 100년을 가동할수 있다. 이 《뽐프》는 하루에 6~8톤의 피를 퍼내여 온몸에 보내준다. 70살난 로인의 심장이 일생에 뽑아 움직인 피량을 1만톤급 유조선에 싣는다면 한 20척에 실어야 다 실을수 있다.

사람의 몸에는 피줄이 1,000억갈래나 되는데 이것을 한줄로 이어놓으면 그 길이는 10만키로메터에 달한다. 이것은 지구의 돌레를 두바퀴나 돌수 있는 길이이다. 이처럼 1,000억갈래에 10만 키로메터나 되는 피줄에 《기름때》가 끼거나 피속에 기름질이 많아져 걸죽하게 되면 심장에 필요이상의 부하가 걸려 병이 오게 된다.

때문에 심장과 혈관 계통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잘 관리하는것은 건강장수의 첫째가는 요구이다.

토 막 소 식

△일본련립 3여당대표단 평양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일본련립 3여당대표단이 주체86(199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련립 3여당대표단은 회담과 접촉들에서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이번 접촉과 회담을 통하여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할데 대한 문제와 조일국교정상화이전에라도 호상 안고있는 인도주의적문제, 협력문제를 서로 착실하게 풀어나가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간 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나라사이의 인도주의적문제, 협력문제를 다루어나가기 위하여 조일 두 나라 집권당들이 서로 자주 래왕하면서 리해를 도모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쌍방은 이번 접촉과 회담을 통하여 집권당들사이의 다무적 및 쌍무적 래왕과 접촉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련화합작회사, 승리윤활유가공공장 조업식 진행

— 련화합작회사가 조업하였다.

새로 조업한 이 회사에서는 맵시있고 질좋은 여러가지 옷들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총련동포들의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승리윤활유가공공장이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공장건설과정은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빛내여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와 념원을 뚜렷이 보여준 나날이였다.

△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인도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52돐에 즈음하여 인도 까말네루종합대학에서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진행되였다.

기증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에 대한 도서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도서들을 우리 나라 대사가 이 대학 학장에게 전달하였다.

△ 평양모란봉교예단 제6차 중국 오교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

축전심사위원회에서는 세련되고 완전무결한 교예기교를 훌륭히 보여준 《공중그네비행》에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을, 《널철봉》종목에 《은사자상》을, 《줄무등손재주》에 《동사자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 제7차 아세아조정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 우수한 성적을 쟁취

제7차 아세아조정선수권대회에서 남자경량급 1인조정에서 김일룡선수가 제2위를, 남자경량급 2인조정에서 리철진, 김성철 선수가 제2위를, 남자중량급 2인조정에서 리계준, 맹철호 선수가 제3위를 하여 은메달과 동메달들을 받았다.

△ 디. 에취. 엘. 평양사무소가 개설되였다.

조선대외운수회사와 디. 에취. 엘. 국제지급운송회사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설되는 디. 에취. 엘. 평양사무소는 대외경제활동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상업문건들과 견본, 소포 등을 가장 빠른 수송수단과 통로로 송배달함으로써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활발히 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 우리 나라에 사는 일본인녀성들 일본방문

조일 정부 및 적십자단체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11월 8일부터 1주일간 우리 나라에 사는 일본인녀성들의 고향방문단 제1진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독자란

꿈결에도 불러보는 조국

안녕하십니까.

고국에서 성의껏 만들어보내주는 잡지 《금수강산》을 통해 우리는 조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됩니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우리 해외교포1세들에게는 눈을 감으면 삼삼히 떠오르는것이 삼천리 금수강산이요, 꿈결에도 그리워 입속으로 외워보는것이 우리 조국입니다. 문필가도 시인도 아닌 저이지만 서투른 솜씨나마 조국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적어보냅니다.

산은 산마다 기암명산이요
골짝마다 맑은물 지줄지줄
들에는 오곡백과 무르익고
공원속에 들어앉은 도시들
한폭의 그림같은 농촌문화주택들
곳곳마다 일떠선 기념비들
바라보고 보아도 또 보고픈
내 조국은 진정 금수강산 나라!

소박하고 순결하며
선량하고 인자하며
용감하고 근면하며
예로부터 화목하던 우리 민족
식의주에 걱정없고
무상치료 무료교육
세금조차 모르는
내 조국은 진정 행복한 나라!

— 조선을 모르거든
미래사회 론하지 말라
천당을 알려거든 조선에 가보라—

5대륙 곳곳에서
벗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오고
얼어붙은 가슴에
인간사랑 혈육의 정 부어주어
민족의 운명 참답게 꽃펴나는
내 조국은 진정 화목한 나라!

신화속의 원시조도
위대한 해살받고
반만년 유구한 단일민족력사에
중견자로 나서고
주체의 태양솟아
세계를 밝혀주며
등대로 빛나는
내 조국은 진정 위대한 나라!

세찬 바람 불어오고
검은 구름 뒤덮여도
흔들릴줄 모르며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의 소나무이런가
그 어떤 봉쇄에도 압력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내 조국은 진정 강대한 나라!

아, 꿈결에도 불러보는 내 조국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
조선 만세!
조선민족 만만세!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신합향인민정부
김 윤 식

깊은 잠을 자려면

잠을 잘 자려면 잠들기전에 마음을 진정하고 간단한 산보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하는것이 좋다.

방은 조용하고 어두워야 하며 이불은 가벼운것으로 덮고 자야 한다.

잠방의 온도는 좀 선선해야 한다.

공기창은 열어놓고 자는것이 좋다.

잠자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많이 먹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깊은 잠에 들수 없다.

잠은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상태에서 자야 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잠약을 쓰는것은 나쁘다.



량심을 묻으라

평양기계대학에는 총련의 한 애국동포가 교육설비로 보내온 극소형전자계산기, 엑스와이자동작도기, 만능제도기 50여대가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우리는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현대적인 설계설비들을 보면서 오랜 세월 자기의 량심을 조국에 묵묵히 묻어오는 그의 소행을 두고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량심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다

주체47(1958)년 이른봄, 일본 교또시에서 살고있는 정일봉동포는 장차 자기의 피땀을 들여 마련해놓으려는 기업의 갖춤새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고계시는데 내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마땅히 민족어버이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기업에 생소한 정동포는 생활에 가까운 봉사업이나 유희업에 낯을 돌리라는 선배들이나 친지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자그마한 철공소를 마련해놓게 되였다.

철공소의 설비가 제살붙이처럼 귀하게 느껴져 쓰다듬는 정동포의 눈앞에 지난날의 눈물겨운 일들이 더듬어졌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살다가 9살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이국땅에 간 정동포의 어린 가슴속에서는 공부하고싶은 열망이 끓고있었다.

그러나 생활난으로 허덕이는 집안에서 엄청난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그 소망을 이룰수가 없었다.

조국이 광복되여 인간의 존엄이란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정동포는 민족의 근본이 있는 조국을 자기의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자각을 스스로 품게 되였다.

한줌안에 몽그려쥐여도 차지 않을만큼 헐렁한 세간을 갖추고 살림을 시작해서부터 정동포는 기업에 미련을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갔다.

그러나 기업의 밑천을 마련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고마운것은 안해였다. 손끝이 모지라지고 피곤이 몰려 눈에 늘 피발이 서있었지만 한푼이라도 벌어 남편의 뜻을 이루게 하자고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억척스레 일하였다.

오늘이 어렵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조국에 자기들의 지성이 바쳐진다는 기쁨이 있어 어스럼한 불빛이 어린 문창호지밖으로 내외의 다정한 말소리가 울려나오고 어줍은 웃음소리도 간간히 새여나왔다.

이렇게 정동포내외의 육체와 넋이 깡그리 집착되여 철공소가 간신히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나 나밖에 너를 모른다는 론리가 사고의 총체를 이루는 땅에서 허약한 기업을 운영해간다는것은 참으로 힘겹고 간고한 일이였다.

조국이 나를 본다. 내 기업이 한걸음 전진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이 기뻐한다.

자기 기업에 조국의 모습, 민족의 기개가 어려진다는 량심의 호소가 있어 사기와 협잡, 거짓과 위선이 탁류를 이루는 세상에서도 정동포는 험하고 어지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고 정직하고 근면한 땀으로 기업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갔다.

언제인가 이국의 동년배가 정동포를 보고 돈버는 재미가 그리도 좋아 잠시의 휴식도 없이 뛰여다니는가고 했다.

정동포는 웃음을 머금으며 자기는 돈이 아니라 량심이 시켜 일을 한다고, 돈 한푼 놓고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하니 힘든줄을 모르고 일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량심은 도리심이다

주체63(1974)년 1월초, 제14차 조국방문단 부단장으로 조국에 온 정일봉동포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보시는 바쁘신 나날에 친히 방문단성원들을 접견해주시였던것이다.

정동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철공소를 세웠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큰 기여를 못한데 대한 죄송감으로 옹송그리고 앉아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포들이 조국에 바친 자그마한 지성도 높이 평가하여주시며 세상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것은 조국을 진심으로 받드는 동포들의 애국적량심이라 하시며 그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수도, 살수도 없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정동포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고매한 덕성에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동포들의 마음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있을세라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그들이 간직한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끼시는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정동포는 대를 이어 충효를 다할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날밤 정동포는 애오라지 아들이 어쩐지 마음을 무겁게 하여 잠들지 못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머리가 비상히 좋고 탐구심과 열정이 있어 기계공학을 배우게 하였다.

안해는 장차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넘겨받아 운영할것을 희망하였으나 정동포는 내 나라가 강해지자면 기계기술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61(1972)년 3월 아들 정형성을 귀국시켜 평양기계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문하도록 하였다.

자신만아니라 아들까지 기계공업분야에 나섰다는것으로 정동포는 기쁨과 긍지가 컸었다.

그러나 지금껏 아들이 유망한 기술인재로 자라는데는 관심을 두었지만 그 속내에 무엇이 자리잡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해왔다.

다음날 정동포는 흰눈이 덮인 대동강유보도를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형성아, 나는 가끔 철공소를 잘 꾸려 돈으로 나라를 받들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천만금보다 귀하고 소중한것은 조국을 진심으로 받드는 애국적량심이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아버지, 이 아들의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에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는 성실한 아버지였지 돈을 모으는 재산가는 아니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량심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인간이 되는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량심이라는 정신적재부를 상속받으렵니다.》

아버지한테서 량심이라는 정신적재부를 상속받은 정형성은 평양기계대학을 나온후 기계공학연구소의 연구사로부터 자동설계실 실장, 강좌장, 기계공학연구소 부소장, 학사로, 발명가로 성장하였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꾸준한 사색과 탐구로 《고속갈이돌연구》, 《계산기지원설계에 의한 기계도면프로그람작성법》 등 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을 하여 국가로부터 여러건의 발명권을 받았다.

불치의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정일봉동포는 아들이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소식에 접할 때마다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짓군하였다.

그는 림종때 안해에게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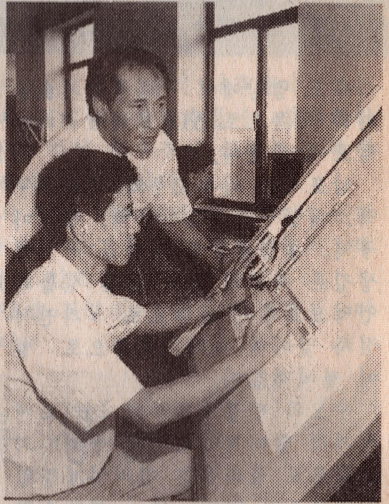
《형성에게 말해주오. 량심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리심이라고. 그것은 량심을 조국에 묻어가는 사람만이 나라와 민족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때문이요.》

우리는 이 글의 마지막을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에서 좌우명으로 삼으라고 보낸 한수의 시로 끝내려고 한다.

…

사람의 일생은 굽이굽이 하는
행진도 있으나
사람은 량심적으로 살아야 하오
최후에는 량심자가 승리하리라

본사기자 조 광 렬



정일봉의 아들 정형성 (뒤쪽)

토종닭

우리 나라에서는 3,000여년전부터 닭을 길러왔다. 토종닭은 오랜 기간 길러오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되였고 생활력이 강한 좋은 특성을 가지고있다.

토종닭은 털색갈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몸무게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암탉의 몸무게는 1.5~2키로그람이며 큰 수탉은 1.8~2.5키로그람이다. 년간 알은 80~120개를 낳으며 알 1개의 무게는 50~60그람이다.

토종닭은 생산성은 높지 못하지만 체질이 강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성질이 온순하고 들판과 야산에 널려있는 풀씨와 벌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자연먹이를 잘 주어먹으며 사양관리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으므로 아무곳에서나 쉽게 기를수 있다.

토종닭의 고기와 알은 다른 닭보다 맛이 훨씬 좋고 고기속에 포함된 단백질의 소화률이 높다.



서해갑문을 참관하는 해외동포들

남포시관광

수도 평양에서 대동강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55키로메터 가면 남포에 이른다.

남포시는 와우도구역, 항구구역, 대안구역,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룡강군으로 되여있다. 땅생김은 북부의 높지 않은 산들과 언덕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바다기슭쪽으로 벌이 펼쳐져있다.

수도의 만경대로부터 10키로메터가량 떨어져있는곳에 천리마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있다.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전후 그 어려웠던 시기에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의 앞장에 섰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오른켠으로 펼쳐진 큰 공장이 보인다. 이것이 11개의 공장, 기업소로 무어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이다. 이 련합기업소에 속한 대안전기공장에서 주체50(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로 불리우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태여나게 되였다.

여기에서 20키로메터정도 달리면 남포시에 들어서게 된다.

남포시관광으로 오는 손님들은 보통 남포체육촌과 와우도, 서해갑문을 돌아본다. 그리고 옛 벽그림무덤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희망에 따라 태성저수지기슭의 평양골프장에도 가고 서해바다기슭의 해수욕장에도 간다.

남포체육촌은 남포시의 서쪽에 있다. 주체62(1973)년 9월에 준공하였다. 체육촌의 경기구역부지면적은 80만평방메터, 경기장과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잘 꾸려져있다.

여기 체육촌을 지나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들어서면 와우도구역이 시작된다. 소가 누워있는 모습의 섬이라고 하여 와우도로 불리우고있다. 와우봉에 오르면 갖가지 꽃나무들이 향기를 풍기는데 정각에 올라 굽어보면 바다와 섬, 남포시가 한눈에 안겨온다. 뽀트장과 휴양소, 화초원과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서해바다에서 금방 잡아온 신선한 조개구이가 이곳의 특산으로서 인기를 끌고있다.

남포시 중심부에서 15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세계굴지의 서해갑문이 있다.

갑문은 대동강의 흐름을 가로막아 8키로메터의 날바다에 언제를 쌓아 5년동안에 건설하였다. 갑문에 들어서는 첫 어구의 화강석문주에는 갑문건설의 년대와 이 갑문을 건설한 조선인민군군인들과 로동계급의 건설모습을 조각하여 형상하였다. 높이 솟은 전망대에 오르면 갑문의 전경을 굽어볼수 있다.

서해갑문에는 2천톤으로부터 5만톤급까지의 배들이 드나들수 있는 3개의 갑실이 있으며 수많은 수문들이 렬지어있다. 갑문건설에 40억딸라가 들었다.

이 갑문이 건설됨으로써 서해지구의 수많은 논과 밭에 관개용수를 주게 되고 공업용수와 음료수문제가 원활하게 풀리게 되였으며 서해지구의 교통로가 새로 생겨나고 대동강하류의 풍경 또한 훨씬 아름다와지게 변모되였다.

남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서약수터에 들려 장생불로의 약수로 목을 추기는것도 좋고 강서세무덤과 덕흥리무덤에 들려 5~6세기의 고색창연한 무덤벽그림을 감상하는것 또한 인상적이다.

강서세무덤안의 사신그림은 푸른룡, 흰 범, 붉은 새, 검은 거부기를 형상한것으로서 동서남북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그림인데 그 필치가 활달하고 생동하여 그때 사람들의 세계인식과 풍습, 독특한 화법을 그대로 더듬어볼수 있다.

주체65(1976)년 12월에 찾아낸 덕흥리벽그림무덤은 그안에 408년 12월 25일이라는 완공날자까지 밝힌 무덤으로서 매우 귀중한 력사자료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생동한 풍습그림들과 함께 견우직녀전설 그림까지 그려져있어서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있다.

이처럼 옛 무덤들과 그안에 그려진 벽그림들은 고구려문화의 높이를 과시하는 걸작품들로서 세계미술사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몇해전에 이곳을 찾았던 동구라파나라의 한 기자는 자기의 려행기에서 《이것은 전대미문의것이다. 5세기에 벌써 조선에서는 회화예술을 완전무결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썼다.

국가관광총국 국장 황 봉 혁

평양의 자랑－모란봉의 정각들

은사각

개선청년공원이 자리잡고있는 모란봉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느라면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이 꽉 들어찬 골안기슭에 아름다운 정각이 은사각이다.

정각은 개선청년공원과 함께 주체73(1984)년에 건설되였다.

160여평방메터의 면적을 가진 합각지붕형식의 정각은 평면구조가 T형이다.

정각은 건물의 위치설정과 변화가 매우 다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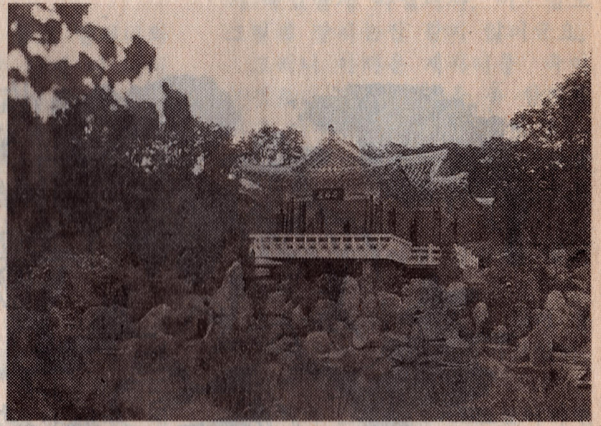
특히 박공과 풍판이 보이는쪽을 정각의 정면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돌출된 지붕의 추녀마루들이 서로 교차되며 경쾌한 립체감을 주고있다.

란간과 기둥도 대조되게 서로 다른 형태를 주어 건축물의 다양선을 살렸다.

독특하게 건설된 정각을 바라보느라면 마치 여러마리의 새들이 방금 깃을 차고 날아갈듯한 감을 준다.

은사각은 주위경치와 잘 어울림으로써 더욱 아름답다.

병풍처럼 펼쳐진 모란봉의 수려한 수림, 기단밑의 기암괴석과 련못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절경에 취하게 한다.



향나무, 다박솔, 고양나무 등의 나무들이 있는 정각뒤에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러 평양에 왔던 통일의 사절 림수경이 심어놓은 측백나무가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정각우에 올라서 앞을 내다보면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을 타고 즐거움에 겨워있는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이 정답게 안겨온다.

은사각은 아름답게 건설된 모란봉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새로운 소형풍력발전기를 생산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에서－

수도 평양에 있는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형풍력발전기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이번에 이 공장에서 새로 설계제작한 소형풍력발전기는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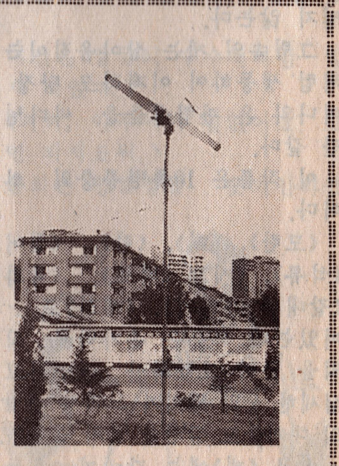
우선 적은 량의 바람을 가지고서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어 그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소형풍력발전기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충전하였다가 임의의 시간에 쓸수 있게 되여있으며 발전기 한대에서 생산된 전기로 여러등의 전등을 켜고 텔레비죤수상기까지 볼수 있다.

설치가 간편하고 쉽게 다룰수 있게 된것도 좋은 측면의 하나이다.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없이 그저 바람새가 좋은 지대나 건물의 옥상 등에 간단히 설치하고 전기를 얻을수 있으며 경량화되여있으므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풍력발전기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소형풍력발전기생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손가락으로 그린 《게》와 양기훈



조선미술박물관에는 독특한 수법으로 그려 뭇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채로운 하나의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이 바로 붓이나 그 어떤 그림도구도 쓰지 않고 손가락에 직접 먹을 묻혀 그린 양기훈의 지두화 《게》이다.

손가락에 먹을 묻혀 그렸지만 붓으로 그린것처럼 섬세하고 생동하여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강사의 설명을 듣기전에는 누구도 그림을 맨손으로 그렸다는것을 믿지 않는다.

그림속의 게는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여 이제라도 당장 기여나와 온 관람실들을 싸다닐것만 같다.

이 작품은 10폭병풍중의 하나이다.

《모란》, 《대》, 《란》, 《궐어》, 《석류》, 《게》, 《백로》, 《국화》, 《갈대와 기러기》, 《매화》로 되여있는데 작품은 손가락에 직접 먹을 묻혀 그렸지만 대담하고도 섬세한 붓의 필치가 느껴져 몰골화의 대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작품 《게》에는 갈대가 흔들거리는 바다가에 한마리의 게가 성큼성큼 기여가고있다.

그 우에는 반대방향으로 기여가는 한마리의 가재가 그려져있고 오른쪽에는 제화시가 있다.

《굳은 갑옷 입고 날카로운 무기 가지고 온 바다가를 싸다니는구나》, 제화시가 말해주는것처럼 툭 부릅뜬 눈, 날카로운 발가락들과 쩍 벌린 집게손, 가마뚜껑과 같은 단단한 몸체, 그림은 박력있으면서도 섬세한 선적표현과 명암까지 잘 살려 각질로 된 게의 질감까지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위풍당당한 바다가《제왕》의 행차에 그 어떤 위압을 느꼈던지 황급히 도주하는 가재의 생동한 묘사는 매우 재미있다.

환경묘사로 처리한 갈대도 어찌나 신통한지 바람이 불면 설레임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 그림을 본 한 재미교포는 이렇게 감탄하였다.

《맨손가락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니 정말 놀랍다. 그 손가락이야말로 천금짜리 손가락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뛰여난 화가는 붓타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나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랑스의 루브르미술박물관이며 여러 미술박물관에 들려 많은 그림들을 보았지만 맨손으로 그린 그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 그림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과 슬기를 보여준다.》

양기훈(1843-1897년)은 민간출신의 재능있는 화가로서 자는 치남, 호는 석연이며 평양시 중화사람이다.

그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전해지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수백점의 작품들은 성격이 호방하고 대단한 정열가였으며 재능있는 화가였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일생동안 화조화에 대단한 관심과 정열을 기울였는데 주제가 다양하고 대담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맛이 나는것이 특징이다.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 《로안》(갈대와 기러기), 《모란》, 《홍매》, 《쇠기러기》 등은 리조화단에 무시할수 없는 당당한 위치를 차지한 석연 양기훈의 재능과 정열을 엿보게 한다.

그는 《도화서》화원은 아니였으나 명성이 국내외에 자자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궁중에도 걸려있었다고 한다.

양기훈의 작품들중에는 금니화도 있다.

지금 조선미술박물관에는 《게》와 함께 《홍매》, 《모란》이 전시되여있어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사 화

게사니가 먹은 구슬알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일찌기 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두 형제가 살았다.

그들이 다 자라자 한집에서 하나씩 나가는 부역이 차례졌다. 그들형제는 토론하다가 형은 집에 남아서 집안살림을 꾸리기로 하고 동생 윤희가 부역에 나가기로 했다.

5년세월을 성쌓는 부역을 하다보니 옷은 다 찢어져 너덜거렸고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였다. 5년만에 동생은 부역에서 풀려나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형을 그리며 부지런히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해가 질무렵에 산간마을을 지나가던 그는 길옆에 있는 한 집을 찾아 들어갔다.

윤희는 겸손하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나서 하루밤만 묵어가자고 사정하였다.

그러자 주인녀인은 손님이 입은 옷이 초라하고 짐도 없는것을 보고 싹 잘라 말하였다.

《우리 집은 주막집이 아니에요. 손님을 재울만한 방이 없으니 다른데나 가보라요. 게다가 바깥주인도 없는데…》

윤희는 하는수없이 그 집의 뜰 한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윤희의 앞에서는 서너살 되여보이는 주인집 아들아이가 멋진 구슬 한알을 손에 쥔채 놀고있었다. 장난에 한껏 취한 아이는 반짝거리는 구슬이 땅바닥에 떨어져 뜰안구석쪽으로 굴러가는것도 모르고 콩콩 뛰며 즐겁게 놀았다.

그때 뜰안에 들어와 돌아치던 게사니가 그 구슬을 무슨 먹을것으로 잘못 알고 넝큼 집어 삼켜버렸다.

한참만에 주인집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구슬을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울음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구슬이 없어진것을 알게 된 녀인은 윤희를 쏘아보았다.

윤희의 초라한 옷과 살이 빠진 볼, 거칠진 손, 눈초리가 가는곳마다 《도적놈》의 기상을 엿볼수 있었다. 그는 성이 독같이 나서 윤희에게 구슬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아이를 시켜 옆집 남정을 데려다 그를 뜰안에 있는 나무에 묶어놓았다.

녀인은 붉으락푸르락 땅땅 발을 구르며 올러댔지만 윤희는 조금도 성을 내지 않았다.

《좋소. 내가 도적놈이라 해둡시다. 하지만 게사니도 내옆에 묶어놓소. 그렇지 않다간 랑패를 보오.》

이 말을 들은 녀인은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게사니도 묶어놓았다.

동녘하늘이 희붐해지자 게사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깨여난 녀인은 윤희앞으로 다가가 또다시 발을 구르며 악을 썼다.

그러나 윤희는 성도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그만 떠들어대오. 게사니가 똥을 누었거든 그것을 헤쳐보오. 거기에 구슬이 있을게요.》

녀인이 게사니의 똥을 헤쳐보니 거기서 구슬이 반짝거렸다. 녀인은 윤희에게 죄를 지어 몸둘바를 몰라하며 쩔쩔 매였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게사니가 구슬을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었더라면 이런 욕을 당하지 않으셨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게사니가 구슬을 먹었다〉고 말만 떼면 녀인은 당장에 게사니의 배를 쩍 갈랐을게요. 그러면 아까운 게사니가 죽었을게 아닙니까. 이 집도 그렇게 잘사는집 같지 않더군요.

그러니 아까운 게사니를 죽이는것보다 내가 피롬을 좀 참기로 하고 아무 말도 안한겁니다.》

녀인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할 때 어떤 사나이가 뜰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녀인은 사나이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윤희는 집주인이 어데 갔다 돌아온줄 알자 그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와뜰 놀랐다.

자기가 그렇게도 보고싶어하던 형님이였다.

형도 동생을 알아보고 와락 그러안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기에 마중갔댔는데 한발 먼저 와있다니. 우린 삼년전에 결혼을 하고 지난해 이곳으로 나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녀인이 어제부터 있은 일들을 사실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것 보오. 내가 뭐라고 했소. 사람이란 걸만 보고는 모른다고 늘 말하군하지 않았소.》

형님은 자기 안해에게 성을 냈다.

녀인은 얼굴이 수수떡처럼 벌겋게 되였다.

《허허, 아주머니 일없어요. 고치면 되지요뭐.》

윤희는 벙글벙글 웃기만하였다.



고구려의 의학기술

우리 겨레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창조적 노력과 뛰여난 재능으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왔는데 그중에서 의학기술의 발전은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시사회의 말기에 쑥, 마늘 등 여러가지 약용식물들을 알아내여 병치료와 장생불로에 리용하였으며 돌을 갈아서 침을 만들어썼다.

고조선의 의학기술을 이어받은 고구려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을뿐아니라 이웃나라의 의학기술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구려의 의학기술에서 유명한것은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는것이였다.

고구려의 의사가 중국의 위나라에 초청되여가서 침을 놓아준 사실에 대하여 중국의 옛기록에는 그 의사가 머리카락을 열동강내고 침대로 꿰뚫어보고 머리털안이 비였다고 했다고 전하고있다. 일본의 옛기록에도 고구려에서 의술을 배운 안작득지라는 사람의 침놓는 기술로는 못고치는 병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있다.

고구려의 침놓는 기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것은 돌침으로 병을 치료하던 고조선의 침놓는 기술을 계승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여러가지 약초와 약재들을 병치료에 널리 리용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찾아내여 병치료와 장생불로의 명약으로 써온 고구려사람들은 인삼 이외에도 오미자, 족두리풀, 당귀, 궁궁이, 만삼, 더덕, 도라지, 너삼 등 식물성약재와 왕지네, 우황 등 동물성약재 그리고 광물성약재도 널리 리용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고구려에서 갑상선치료에 널리 리용해온 다시마를 조선에서 나는 명약재로 여겼으며 우리 나라에 와서 대대적으로 사가군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또한 각종 약의 제조방법과 함께 사용방법도 발전하였다. 그리고 질병치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림상경험을 가지고있었는데 옛 의학책들인 《천금요방》, 《로사방》 등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의사들은 높은 의술로 하여 당시 동방 여러 나라들에 초빙되여 왕을 비롯한 높은 급의 인물들을 치료해주고 그 나라들의 의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본의 옛 력사책에는 459년에 일본에 초빙되여간 고구려의사 덕래가 그곳에서 의학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그의 자손들인 해일, 해암들도 일본의학발전에 기여한것으로 전하고있으며 고구려의사 모치도 일본에 가서 그 발전에 공헌한 사실이 적혀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창조한 뛰여난 의학기술의 토대는 우리 나라 의학기술발전의 큰 밑천으로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선조들은 1445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학대백과사전인 《의방류취》를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식물이 생활환경에 주는 영향

쑥잎에는 비타민 에이, 비$_1$, 비$_2$, 씨, 콜린과 철, 칼시움, 린 등의 광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여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작용으로 심장이나 피줄의 기능이 높아진다고 한다.

쑥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쑥잎을 뜯어서 물에 씻은 다음 해빛에서 2~3일 말리워두고 한숟가락의 쑥잎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거르개로 거른뒤에 아침저녁으로 한고뿌씩 마시면 된다.

식물은 공기, 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식물은 무엇보다도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자료에 의하면 보통 1정보의 넓은잎나무숲은 한창 자라는 시기에 하루동안에 1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0.73톤의 산소를 내보낸다고 한다.

또한 식물은 아류산가스, 불화수소, 염화수소를 비롯한 해로운 가스를 흡수한다. 식물의 잎은 흡수된 아류산가스를 대류산염으로 변화시킨후에는 다시 류산염으로 만든다.

식물은 이밖에도 방사성물질의 복사선을 막아줄뿐아니라 려과, 흡수하므로 방사성오염에 의한 피해를 막아준다.

식물은 다음으로 오염물질인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식물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집중되여 사는 도시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록지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600여만의 조선사람 강제련행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음모적이며 사기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강제련행범죄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야말로 가장 악독하고 파렴치한 노예사냥군들이였다는것을 실증하여 주고있다.

조선사람강제련행은 일제의 해외침략정책과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말살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그것을 계단식으로 확대한 일제에게는 더 많은 병력과 로동력이 요구되였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새로 요구되는 로동력은 주체28(1939)년에 110여만명, 주체30(1941)년에 250여만명, 패망직전에는 790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일제는 조선사람강제련행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로무조정령》 등 악법을 수다히 조작공포하였으며 주체31(1942)년에는 《반도인로무자활용에 관한 방책》이라는 내각결정을 공포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악법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알선요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다. 이러한 《법령》들은 일본이 주체21(1932)년 11월에 비준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29호 《강제로동금지협약》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비법적인것이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전시로력동원계획》에 따르는 《인력공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알선요강》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내에 《조선로무협회》본부를, 각도에는 지부를, 각 부, 군, 도(섬)에는 분회를 두어 강제련행망을 전국각지에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조선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련행하였다. 일제는 강제련행의 강압적성격을 숨기기 위하여 주체28(1939)년에는 《모집》, 주체31(1942)년부터는 《관알선》이라는 명목밑에 회유와 강권을 배합하여 조선사람들을 끌어갔다.

일제는 침략전쟁말기에는 기만과 회유의 간판마저도 집어던졌다. 일제는 스스로가 《급격히 늘어나는 로동력확보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알선〉이라는 뜨뜨미지근한 방법으로써는 원만한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일본인 가마다는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였다. … 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그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였다.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꺼리낌없이 잡아갔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였던 미즈다 나오히로까지도 《인간이라는것을 전쟁의 희생물로 바쳤다. 리해같은것은 시킬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노예사냥의 성격을 인정하였다.

전시소모품처럼 취급하였다

일제의 악착하고 무자비한 노예사냥에 의해 600여만의 조선사람들이 강제련행되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당시의 전조선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 청장년로력이 강제련

일제는 죄없는 조선사람들을 악착하게 끌어갔다.



행되였다는것은 인류사상 일찌기 없었던 악독한 범죄행위이며 조선민족말살정책과 직결된 천추에 용서받을수 없는 일본의 국가적대죄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조선국내는 물론 일본과 해외의 탄광, 광산의 험한 지하막장과 수력발전소, 철도건설장과 같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고역장들에 끌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용소에 잡아넣고 죄인취급을 하였다.

이 수용소들은 《강꼬꾸베야》(감방), 《다꼬베야》(문어굴), 《나야》(창고 또는 우리), 《함바》, 《료》(로동자합숙) 등 각이한 이름으로 불리웠으나 공통적인것은 그것들이 모두 죽음의 수용소라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사람들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전시소모품처럼 취급당하였다.

한 일본사람은 일제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혹독한 착취행위에 대하여 《나는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자기 말도 그렇게는 부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에 대한 숙식조건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자리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올려다보이고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막을수 없는 한지나 다름없는곳이였다. 침구라는것은 긴 통나무가 베개였고 입고다니는 누데기 단벌옷이 그대로 덮개였다.

먹는것은 콩깨묵이나 수수덩어리와 멀건 소금국이였다.

야수같은 일제는 조선사람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병들어 죽건, 고역에 시달려 죽건간에 생산물만 나오면 그만이였다.

병에 걸려죽으면 소달구지로 실어다 큰 구뎅이에 마구 묻어버렸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갈구리같은것으로 찍어서 콩크리트타입물속에 처넣었다.

노구찌란 놈은 사망신고서를 무려 3만장이나 인쇄해가지고 《이것이면 공사는 문제없다.》고 지껄여댔다. 조사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주체29-33(1940-1944)년 사이에 일본렬도내의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무려 6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희생되였다.

고역장들에서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일본의 어느 한 철도부설공사장에서 《침목 한대에 조선사람 1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일제의 포악무도성과 잔인성, 야만성은 조선사람들을 공사가 끝난후 《비밀엄수》등 여러가지 구실로 학살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전 동부군첩보사관이였던 한 일본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극비밀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쯔모도대본영지하방공호에서 주체34(1945)년 4월부터 패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강제련행된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사슬에 련결된채 강제로동을 강요당하다가 그중 500명이 학살당하였다. 또한 꾸릴렬도에서 5,000명, 우르프섬에서 2,500명이 집단학살당하였다. 일본의 가고시마현 비행장건설장과 이와데현 《야하기》철도공사장, 시나노강수력발전소 등에는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이 강물로 흘렀다.

참으로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겨놓았고 인류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아 마땅한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당국자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려면 응당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보상해야 한다.

본사기자 윤 홍 엽

바둑

바둑은 둘이서 바둑돌을 판에 하나씩 놓아가며 상대방의 돌을 포위하거나 《집》을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바둑은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와 함께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놀았다.

바둑은 바둑판과 바둑돌만 있으면 놀수 있는데 바둑판은 예로부터 가볍고 바둑돌을 놓는 감촉이 좋은 오동나무로 가로세로 50센치메터정도의 네모형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전하는 바둑판은 가로세로 같은 간격으로 줄을 19줄 긋고 그 사귐점을 《로》라고 한다.

바둑돌은 361개의 사귐점에다 놓을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흰것과 검은것이 있어야 한다. 돌의 크기는 직경 1센치메터이며 형태는 원판던지기경기때 쓰는 원판모양으로 만든다.

바둑에서는 나이많은 사람이 흰돌을 가지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경기는 우선 바둑돌을 사귐점에 놓으면서 하는데 반드시 교대로 한개씩 놓으면서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포위하여 잡은 돌을 모두 들어내고 포위선안의 《집》을 계산하여 결정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로잡은 돌을 가지고 상대방의 《집》을 메운 다음 나머지 《집》수만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것이다.

이밖에 바둑을 노는데는 《호구》, 《패》, 《축》과 같은 몇가지 준칙이 있다.



룡천청년역

동승기

《마음도 붕, 기분도 붕》

우리는 얼마전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새로 뻗은 청춘궤도를 따라 달리는 려객렬차에 올랐다.

밝고 산뜻한 감을 주는 렬차의 내부장식도 기분을 상쾌하게 하였지만 손님들의 명랑한 표정이 또한 기분을 돋구어주었다.

우리가 중간에 있는 빈자리에 손짐을 놓는 순간 렬차는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렬차손님들은 대체로 초면이지만 몇마디의 주고받는 말에 인차 친숙하여져 구면친구처럼 되여버렸다.

우리 앞에 앉은 머나먼 갑산땅에서 온다는 80고령의 로인내외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눈에 정기가 있고 목소리도 청청했는데 로인이 쉼없이 하는 이야기인즉 자기 집안은 대가 펴지지 못해 8대외독자로 대가 이어져오고있다는것이였다.

로인은 그게 하도 이상하여 손자만은 산좋고 물좋고 전설많은 금강산으로 내보내면 꼭 무슨 알도리가 있을것이라고 단정하고 고성군 온정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는데 가정을 이룬 손자한테서 쌍둥이증손자를 보았다는 기별이 왔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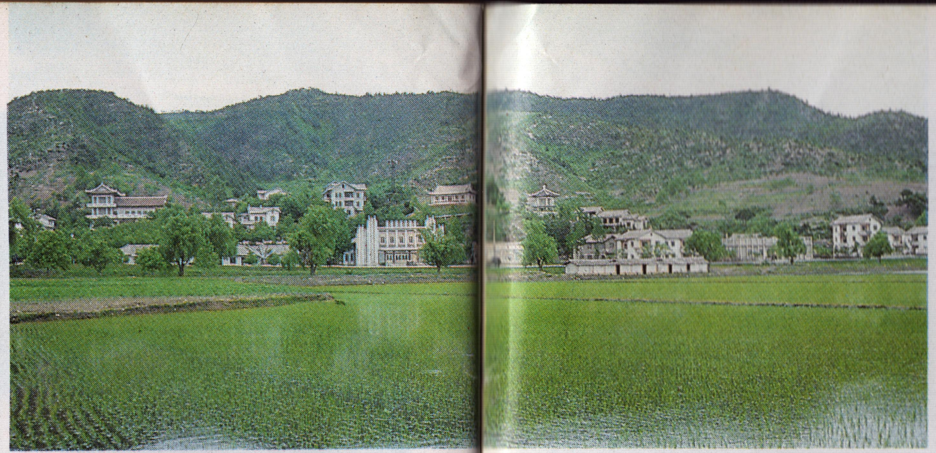
쌍둥이증손자를 본 기쁨을 말로써는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새로 개통된 렬차까지 타고 금강산으로 가니 기쁨에 기쁨, 경사에 경사가 겹치고 덧쌓여 행복감에 취했노라 하였다. 그러면서 맥주병을 잔에 기울여 쭉 따고는 차창밖에 눈길을 보냈다.

안변역을 떠난 렬차는 동해곡창지대인 안변벌을 옆에 끼고 경쾌하게 달리는데 끝없이 펼쳐진 풍요한 벌에서는 싱그럽게 자란 벼포기들이 늠실거리고있었다.

렬차가 안변벌을 뒤로 보내며 첫 차굴을 빠져나가자 검푸른 동해바다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였다.



수없이 많은 차굴들을 지나간다.



농촌문화주택도 한눈에 안겨온다.



렬차안에서 보이는 시중호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로 돌아오는 고기배, 해당화 붉게 핀 백사장에서 고기그물을 손질하는 녀인들…

이 모든 정경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련상시킨다.

이 풍경에 흥심이 동했던지 금강산구경을 간다는 청춘남녀들이 《배사공의 노래》를 멋들어지게 뽑아넘긴다.

렬차의 서쪽차창밖으로 산발들이 흘러가는데 산기슭마다에 만발한 온갖 꽃들이 반겨맞고 동해의 이름난 호수들인 동정호, 시중호의 특유한 경치도 더 유정하게 안겨온다.

말없이, 웃음없이 그냥 보낼수 없는 행복의 시각이다.

사람마다 여기 산천과 잇닿아있는 전설이며 사화, 자연지리를 체험하고 느낀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것이나 기쁨과 긍지를 더해준다.

옆의자에 앉은 몸집이 큰 중년은 자기는 허리병환자로서 하루 10리걸음도 어려웠는데 시중호감탕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에 앉은 녀인들을 보며 하는 말이 평양시 중신동에서 사는 한 녀인은 결혼하여 10여년간 태기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시중호료양소에서 감탕치료를 받은후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세쌍둥이가 힘이 장사여서 력기선수로 자랐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력기기록보유자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던 《갑산할아버지》가 기분이 붕 떠서 응수를 하였다.

《여보게 이 사람, 금강산에 비하면 시중호의 경치가 몇촌동생벌이 될가. 이 산천정기를 받아 태여난 세쌍둥이가 공화국력기기록보유자로 전망된다면 금강산의 정기를 받고 태여난 우리 쌍둥이증손자는 세계력기기록보유자가 우습게 될상싶지 않은가.》

와— 즐거운 웃음이 터져올랐다.

쉼없이 주고받는 이야기속에서 시간은 흘러 렬차는 이 로선의 마감인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청년역을 가까이했다.

점차 우리의 눈앞에 금강산 일만경치의 일각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울리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건설한 금강산청년역,

우리는 《갑산할아버지》량주가 손자며느리의 산후몸보신에 쓰려고 가지고온다는 산꿀단지를 들어주며 렬차에서 내렸다.

이때 우리앞으로 《할아버지!》하며 달려오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손자며느리가 곱게 하는 인사를 받은 《갑산할아버지》는 그들이 안고있는 쌍둥이증손자를 받아안았다.

《이름은 큰증손자는 금산이, 둘째는 금강이라 지었다지. 기자선생, 어떠하시우.》

우리는 호탕하게 웃으며 참 이름이 좋다고 하였다.

우리옆으로 지나가던 처녀애가 자기 어머니를 보며 새실거렸다.

《엄마, 사람들이 다 싱글벙글해요. 마음도 붕, 기분도 붕 떠서.》

사진 박강철



려행길에서



해안선을 달리는 려객렬차

조선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주인공 신준의 그릇된 처사에 충고를 주는 수양

지난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먼 후날의 나의 모습》(영화문학 위웅용, 연출 장인학)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영화는 평양의 어느 한 대외봉사기관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주인공 신준이 먼 북방의 대홍단군종합농장으로 자원진출하면서 자기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준으로 말하면 공훈설계가이며 로력영웅인 아버지와 어느 한 대학의 일군인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속에 자라온 새 세대 청년이다.

신준은 택시운행중 우연히 마음씨 착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한 처녀를 알게 된다. 그가 바로 속도전청년돌격대 미장소대장인 수양이다. 수양은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대홍단군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여 수년세월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청춘을 위훈속에 꽃피워온 처녀이다.

신준은 수양을 마음에 두고 사모하지만 그가 상급학교추천도 마다하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자 더는 어쩔수 없게 된다.

신준은 그후 휴가를 받고 수양이가 떠나간곳이고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대홍단군으로 떠난다.

그는 수양을 평양에 데려다 부모의 힘을 빌어 대학공부를 시키고 그와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양에 대한 신준의 사랑의 고백은 랭절히 거절당한다.

신준은 평양견학을 온 수양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부모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명예와 재부를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한다.

그러한 신준에게 수양은 이 집에 동무의 모습이 무엇이 남아있는가고, 부모의 공적과 자신의 공적을 갈라볼줄 알아야 한다고 준렬히 충고한다.

뒤늦게야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자신을 자각하게 된 신준은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며 결국 대홍단군종합농장으로 자원진출한다.

평양에서 먼 북방의 새로운 일터로 온 신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진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에 절실히 필요한 대용연료를 완성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다. 모험적인 시험에서 사고까지 저지른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의지하여 얻은 행복이 자기가 택한 고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쏟아붓는 신준은 끝내 대용연료를 완성하고 농장의 어엿한 역군으로 준비된다.

하기에 신준은 성공의 그날 수양에게 지난날 자기에게 물었던 너의것이 무엇이냐는 그 물음에 기름진 이 땅, 풍요한 이 가을, 내 조국의 먼 래일,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떳떳이 대답한다.

영화는 이렇듯 먼 후날에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는 조국의 재부속에 참다운 인생의 행복이 있고 청춘시절의 값있는 삶이 있음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큰 성과작이다.

대홍단군종합농장으로 자원진출해가는 주인공 신준



련광정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련광정은 고려시기에 세웠던것을 리조시기인 1670년에 고쳐지은 루정이다.

우리 선조들의 재능과 슬기가 깃들어있는 련광정은 독특한 건축양식과 높은 건축기술이 겸비된 우리 나라 루정건축물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련광정은 덕바위와 그옆의 절벽우에 쑥 내밀어 세워서 주위의 환경과 잘 어울리게 자리를 잡았는데 남쪽채는 축대를 든든히 고여쌓고 북쪽채는 네모기둥을 높이 받쳐 마치 2층처럼 보이게 하여 건물전체의 수평을 잡고 그우에 다락을 세웠다.

규모에 맞게 지붕의 룡마루높이와 너비가 섬세하게 설정된것이라든가, 크고작은 두개의 합각지붕이 직각으로 어기쳐 맞물려져있는 모양, 아담하게 조각한 닭의 대가리모양으로 생긴 란간기둥 등은 다른 루정들에서 보기 힘든 재치있는것들이다.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입혀진 모루단청과 대들보들에 그려져있는 화려한 비단무늬들은 루정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구어준다.

련광정은 건축술도 뛰여나지만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또한 이름이 높다.

여기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산경치와 물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하여 처음에 련광정을 《산수정》이라고 불렀고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도 불리웠다.

그후 《련광정》이라고 고쳐불리우게 되였다.

련광정이란 이름도 바로 전망경치가 좋은 루정이라는 뜻이다.

련광정은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꼽히워왔다. 오늘 련광정은 우리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선조들의 재능과 슬기를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